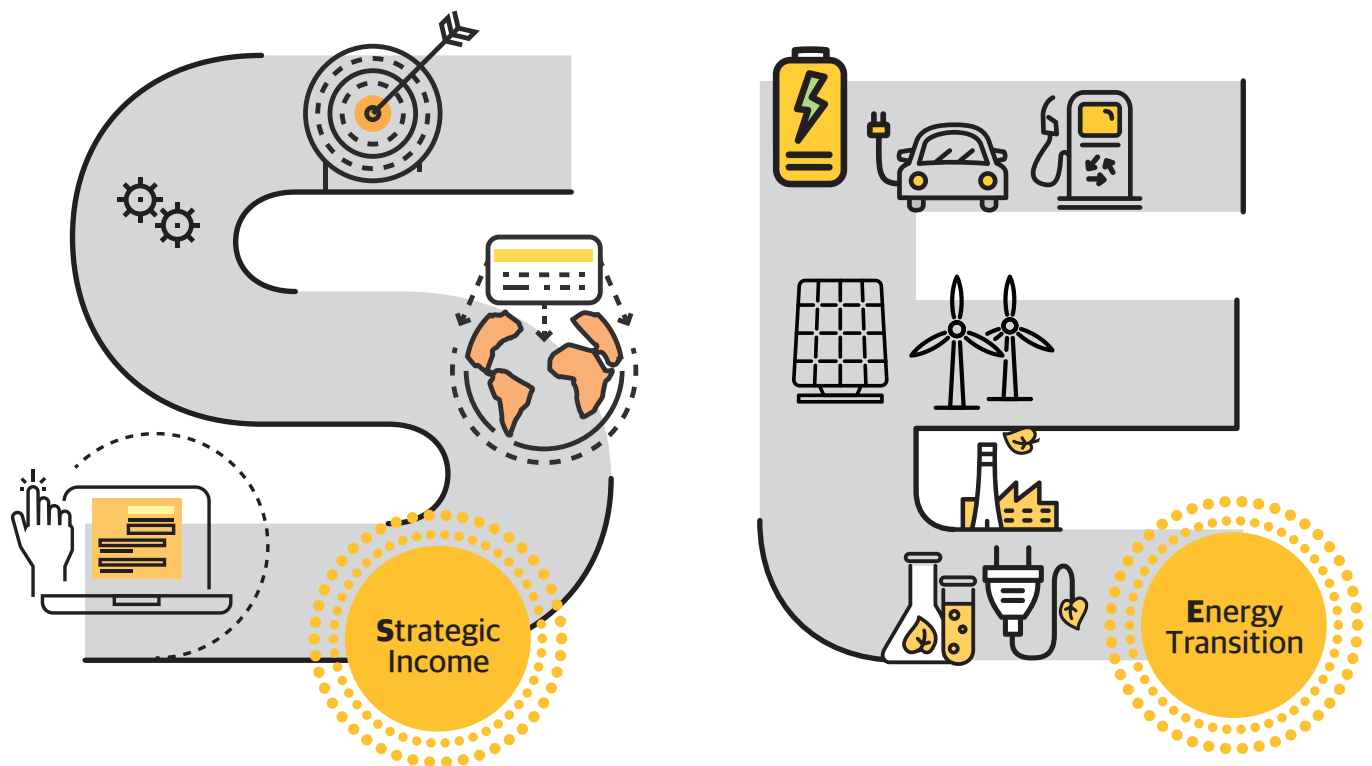


RISE ETF 투자가이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

RiseETF

발행처 | KB자산운용

발행일 | 2025. 3. 31

작성자 | ETF상품마케팅실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18, 40, 41층

대표전화: 02-2167-8200

Rise

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 RISE ETF입니다.
RISE ETF는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속 가능한 투자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투자자들에게 RISE ETF만의 명확한 방향성과
차별화된 메시지를 “RISE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RISE 전략”은 연금, 성장, 전략적 수익,
그리고 에너지 전환 대응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보다 전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RISE ETF만의 철학과 전략을 반영한 키워드별
투자 접근법과 핵심 상품을 통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최적화된 상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ISE ETF는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가장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략적 투자 파트너, RISE ETF가 되겠습니다.

Team RISE ETF 드림





다가오는 내일 떠오르는 투자

밤낮없이 들여다 보지 않아도, 믿고 맡겨둘 수 있는 투자. 매일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는 투자. 느긋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꾸준히 그리고 건강하게. 당신의 노후를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건강한 ETF 투자를 약속합니다.

RISEETF

Contents

ETF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04
Retirement Essential	06
Innovation Leader	14
Strategic Income	22
Energy Transition	34
ETF 가이드북 FAQ	40
투자자 유의사항	46

행동재무학으로 살펴본 ETF에 투자해야 하는 3가지 이유

많은 사람들이 ETF 투자의 장점으로 “주식처럼 거래가 편리하다는 점”, “1개 ETF종목 투자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주로 언급합니다.

하지만 RISE ETF는 남들과 똑같은 표면적인 장점이 아닌, 투자자들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행동재무학적 관점에서 말이죠. 행동재무학은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비합리적인 심리적 함정과 그 결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ETF 투자는 단순히 편리한 투자 수단을 넘어, 투자자들이 가진 심리적 약점과 오류로부터 우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특별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AI를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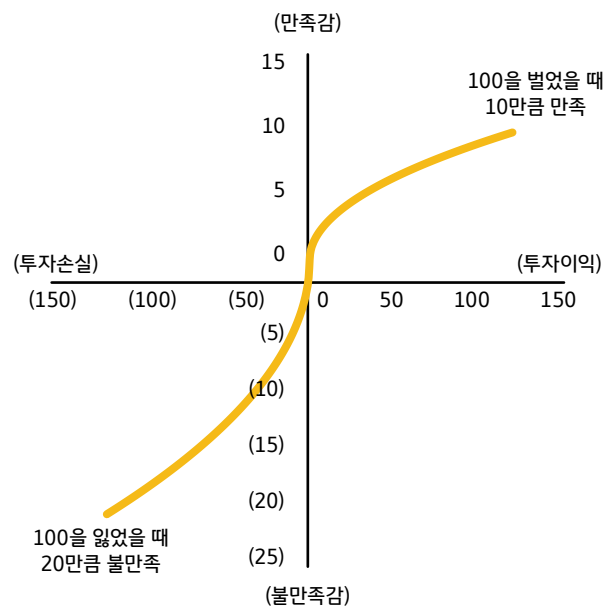
1. 손실 회피 심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Loss Aversion)’는 같은 금액이라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이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실이 난 주식은 “언젠가 회복되겠지”라며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들고, 반대로 이익이 난 주식은 “더 오르기 전에 확정하자”며 너무 빨리 파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ETF는 수십,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를 통해 이러한 손실 회피 심리를 자연스럽게 완화합니다.

한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ETF 전체로는 1~2%의 하락에 그치기 때문에, 투자자는 개별 종목 투자에서 느끼는 극심한 감정적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험 분산 효과를 넘어, 투자자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한 투자자의 심리>



* 출처: KB자산운용

2. 과신 편향에서 오는 실수를 방지합니다.

행동재무학에서 ‘과신 편향(Overconfidence Bias)’이란 투자자들이 자신의 분석 능력과 정보를 과대평가하여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예측이나 판단의 정확성을 과대평가” 하는 착각에 빠져 불필요한 거래를 반복하고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ETF 투자는 이러한 과신 편향을 구조적으로 억제합니다.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의 특성상,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려는” 무모한 시도 대신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접근법을 자연스럽게 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만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횟수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세금 효율성 증대, 시간 절약 등 실질적인 재무적 이점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가져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시를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3. 시장 쏠림 현상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행동재무학에서 ‘군집행동(Herding Behavior)’은 투자자들이 독자적 판단보다 다수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요즘 뜬다는” 주식에 무비판적으로 투자하거나 “남들이 다 판다”는 이유로 손실을 확정하는 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군집심리는 시장 버블을 형성하고, 버블이 터질 때 대규모 손실로 이어집니다.

ETF 투자는 이런 군집행동 함정에 빠지는 것을 제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진 지수 구성 방식에 따라 투자되는 패시브 전략에 기초합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적

판단이나 시장 유행에 따른 충동적 결정이 개입할 여지를 크게 줄여줍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규칙이 투자 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인기 종목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단기적 트렌드를 좇는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규칙에 따른 투자 원칙이 감정적 판단이나 군중심리에 휘둘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시를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ETF투자로 감정적 투자의 한계를 넘어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ETF는 인간이 가진 다양한 투자 심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을 완화하고, 과신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며, 군중심리의 위험에서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ETF 투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낮은 비용이나 거래의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투자자의 감정과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RISE ETF는 투자를 단순한 금융 활동이 아닌, 인간 심리와 행동이 복잡하게 얽힌 의사결정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ETF 투자를 통해 심리적 편향의 덩어리에서 벗어나 보다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단기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지혜의 시작입니다.

Rise ETF

Retirement Essential (연금 필수자산)



Retirement Essential

검증된 대표지수로 성공적인 장기투자 실행

은퇴 준비와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상품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Retirement Essential (연금 필수자산)의 핵심 가치

RISE ETF는 검증된 대표지수를 효율적으로 추종하는 저비용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 장기적 자산 성장 : 장기 성장에 초점을 맞춰 은퇴 자금 등 장기 목표 달성
- 분산 투자 :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해 개별 위험 최소화
- 낮은 비용 : 저렴한 운용 보수로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 극대화
- 투명성 : 명확한 지수 추종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투자 결과

누구에게 적합한가?

- 장기적인 은퇴 자산 구축을 원하는 투자자
-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 검증된 지수에 저비용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
-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기초를 다지려는 투자자

Retirement Essential의 ETF 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연금 투자자를 위한 장기 투자 핵심전략

저비용 분산투자

지수(Index) 투자의 모든 것: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기초

“지수(Index)에 투자하라.” 현대 투자이론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워렌 버핏, 인덱스 펀드의 선구자 존 보글과 같은 투자 거장들은 한결같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별 종목 선택보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라고 조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수란 무엇이며, 지수 투자는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S&P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ETF를 매수하는 것이 지수 투자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투자자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투자 구루(Guru)들의 조언만으로는 “왜?(Why)”, 그리고 “어떻게(How)” 지수 투자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에서는 지수의 개념과 지수 투자의 원리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인덱스 중 하나인 나스닥100 지수(Nasdaq-100 Index)에 집중하여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수의 개념: 시장을 하나의 숫자로 읽는 법

지수(Index)는 수많은 기업의 주가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합하여 시장의 움직임을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개별 주식들의 가격 변화를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통합하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500 지수(Index)는 미국 대형주 500개 종목을 평균적인 주가 흐름을 반영합니다. 나스닥100 지수(Index)는 기술 중심의 대형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기술 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지수가 각각 대형주 및 중소형 성장주의 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만약 S&P500 지수(Index)가 2% 상승했다면 미국 대형주들이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이며, 나스닥100 지수(Index)가 3% 하락했다면 기술주 중심의 기업들이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특정 개별 주식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가 지수(Index)를 활용한 투자, 왜 필요할까?

지수(Index) 투자는 개별 기업을 선택하는 대신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의 성과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필요없이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상승 흐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ISE 미국S&P500 ETF에 투자하면 미국 대형주 500개 종목을 한 번에 매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ISE 미국나스닥100 ETF를 매수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기술 중심의 1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종목의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에 참여하는 투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수 투자의 3가지 핵심 장점: 분산, 효율,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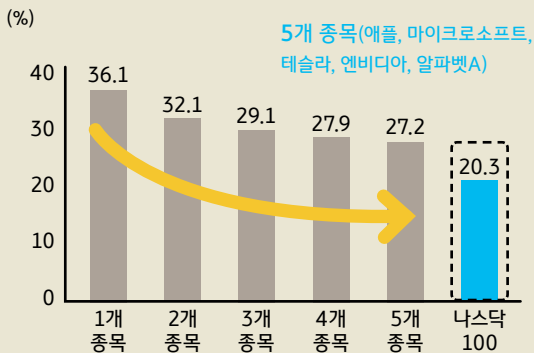
지수 투자는 단순히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식 투자와 비교했을 때 분산 투자, 투자 효율성, 시장 변화 대응력 측면에서 강력한 장점을 가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선택하지만, 개별 주식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지수 투자입니다.

첫째, 분산 투자로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 기업의 실적 악화, 경기 변화, 또는 예상치 못한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큼니다. 하지만 지수는 여러 종목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되므로, 개별 주식이 가지는 높은 변동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100 ETF에 투자하면 나스닥100 지수(Index)에 포함된 애플(AAPL), 마이크로소프트(MSFT), 엔비디아(NVDA) 등 100개 기업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나머지 기업들의 상승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낮아지고,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분산효과: 투자 자산이 많아지면 감소하는 변동성>



참고: 2011년 1월 ~ 2025년 1월 기준. 5개 기업 대상 각 조합별 일별 수익률의 동일 가중 평균으로 변동성과 수익률 산출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둘째,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직접 선택하고 관리하려면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지수 투자 상품인 ETF를 활용하면 단 하나의 상품만으로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수(Index) ETF 하나로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



출처: KB자산운용

예를 들어, S&P500 ETF를 매수하면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을 자동으로 편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지 않아도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2만원으로 1주도 사기 힘든 미국 대형주식을 500개나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초보 투자자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개별 종목을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특정 기업의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전체 시장의 성장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지수 투자는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종목이 재구성됩니다.

지수(Index)는 시장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재평가하고 교체하는데, 이를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목 교체가 아닌,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지수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이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 지수는 진화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S&P500 지수의 상위 기업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전통 제조업과 에너지 기업이 시장을 주도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통신, 제약, 금융 등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S&P 500 지수 상위 5개 기업 변화 추이>

순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4년
1위	IBM	General Electric	Exxon Mobil	Apple
2위	Exxon Mobil	Exxon Mobil	Apple	Nvidia
3위	General Electric	Pfizer	Microsoft	Microsoft
4위	Philip Morris	Cisco Systems	General Electric	Alphabet
5위	Royal Dutch Shell	Citigroup	Chevron	Amazon

출처: voroniapp, KB자산운용

이러한 자동 조정 메커니즘은 지수 투자의 핵심적인 강점입니다. 개별 투자자가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지수 투자는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특히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지수는 시장의 선택과 집중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성장하는 기업의 비중은 자동으로 확대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비중은 축소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수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의 실적 변화나 산업 트렌드를 일일이 분석할 필요 없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에 편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현대 금융시장에서 그 유효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Index) 해설: 시장별 특징과 의미

전세계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지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미국의 3대 지수입니다.

1896년 탄생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세계 최초의 주가지수로, 미국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며 진화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철도, 면직물과 같은 전통 산업 기업들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기술, 금융, 헬스케어 등 현대 경제를 대표하는 30개의 우량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가 가중방식을 사용하지만, 125년 이상 미국 경제의 건강 지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수는 S&P500입니다. 1957년 출범한 이 지수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실질적 벤치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시가총액만으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 실적의 안정성, 주식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등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종목을 선정합니다.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사용하여 각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100 지수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대표 역할을 하는 지수입니다. 금융 기업을 제외한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고성장 기술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통적인 지수들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미래 산업 트렌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 각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수들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MSCI World 지수는 23개 선진국 시장의 대형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을 포함하는 MSCI ACWI(All Country World Index)는 선진국 23개국과 신흥국 24개국의 기업들을 아우르며, 더 넓은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영국의 FTSE100, 독일의 DAX, 프랑스의 CAC40이 각국의 대표 지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니케이225가 가장 유명하며, 중국은 상해종합지수와 항생지수를 통해 본토와 홍콩 시장의 움직임을 각각 반영합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대만의 가권지수는 글로벌 IT 산업의 중요한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주가지수>

구분	지수명	출범	특징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1896	대형 우량주 30개, 가격 가중, 전통 산업 중심
미국	S&P 500	1957	미국 증시의 실질적 벤치마크, 시가총액 가중방식
미국	나스닥 100	1985	기술주 중심, 혁신 산업 반영, 성장성이 큰 기업 중심
선진국	MSCI World	1969	선진국의 대형주로 구성, 글로벌 투자 벤치마크
전세계	MSCI ACWI	2001	선진국 + 신흥국 포함, 전 세계 시장의 움직임 반영
영국	FTSE 100	1984	런던 증권거래소 상위 100개 기업, 영국 경제 반영
독일	DAX	1988	독일 대형 40개 기업으로 구성, 독일 경제 반영
프랑스	CAC 40	1987	프랑스 대형 40개 기업으로 구성, 프랑스 경제 동향 반영
일본	니케이 225	1950	도쿄증권거래소 상위 225개 기업, 가격 가중방식
중국	상해종합지수	1991	중국 본토 증시의 흐름 반영, 국영기업 비중 높음
홍콩	항생지수	1969	홍콩 증시 대표 지수, 중국 본토 및 다국적 기업 포함
한국	코스피	1983	한국 증시의 대표 지수, 시가총액 가중방식 적용
한국	코스닥	1996	성장주·벤처기업 중심, 변동성이 높은 시장
대만	가권지수	1967	대만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포함, IT 산업 비중 높음

출처: KB자산운용

진화하는 지수(Index) 시장: 새로운 투자 기회의 확장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지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별 지수의 발전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각 산업의 특수성과 성장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가장 권위 있는 지표로 자리잡았습니다. 1993년 출범한 이 지수는 반도체 설계, 제조, 장비 기업들을 포함하며, 특히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지수들은 해당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 잠재력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지수들이 발달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FTSE EPRA/NAREIT 글로벌 리츠 지수는 전 세계 상장된 리츠와 부동산 기업들의 성과를 측정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 채권 지수가 국채, 회사채, 신흥국 채권 등 다양한 채권의 움직임을 반영하며, 특히 금리 변화에 민감한 투자자들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 원유와 같은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지수들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수 투자, 장기 자산 형성의 핵심 전략

지수 투자는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효율적인 자산 배분, 시장 변화에 대한 자동 적응이라는 세 가지 핵심 장점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일반 투자자라면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 전략이 그렇듯 지수 투자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아쉬울 수 있고,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 함께 하락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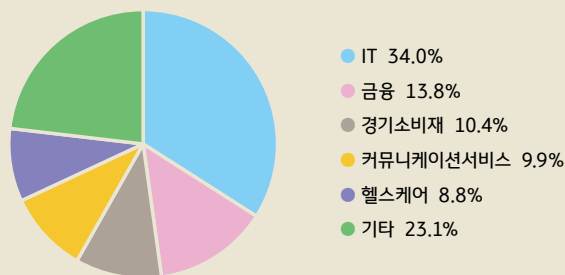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자산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지수 투자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삼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게 다른 전략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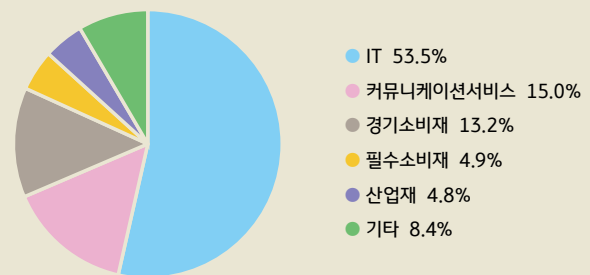
RISE 미국S&P500 / 미국S&P500(H)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대표 500대 우량기업에 시가총액 비중 투자 •환노출·헤지형 선택 가능하여 유연한 전략 구현 •업계 최저 수준 보수(연 0.0047%)로 장기 수익 극대화 *출처 : 한국거래소, 2025.07.31 기준																							
종목코드	379780 / 453330																						
상장일	2021.04.09 / 2023.03.21																						
순자산규모	1조 1,125억 / 996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0047%																						
기초지수	S&P500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 매월																						
종목 수	503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td>NVIDIA</td><td>8.1%</td></tr> <tr><td>Microsoft</td><td>7.4%</td></tr> <tr><td>Apple</td><td>5.8%</td></tr> <tr><td>Amazon.com</td><td>4.1%</td></tr> <tr><td>Meta Platforms</td><td>3.1%</td></tr> <tr><td>Broadcom</td><td>2.6%</td></tr> <tr><td>Alphabet A</td><td>2.1%</td></tr> <tr><td>Alphabet C</td><td>1.7%</td></tr> <tr><td>Berkshire Hathaway B</td><td>1.6%</td></tr> <tr><td>Tesla</td><td>1.6%</td></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NVIDIA	8.1%	Microsoft	7.4%	Apple	5.8%	Amazon.com	4.1%	Meta Platforms	3.1%	Broadcom	2.6%	Alphabet A	2.1%	Alphabet C	1.7%	Berkshire Hathaway B	1.6%	Tesla	1.6%
종목명	비중																						
NVIDIA	8.1%																						
Microsoft	7.4%																						
Apple	5.8%																						
Amazon.com	4.1%																						
Meta Platforms	3.1%																						
Broadcom	2.6%																						
Alphabet A	2.1%																						
Alphabet C	1.7%																						
Berkshire Hathaway B	1.6%																						
Tesla	1.6%																						

RISE 미국나스닥100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 추종 •글로벌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에 한 번에 투자 •업계 최저 보수(연 0.0062%)로 장기 수익 극대화 *출처 : 한국거래소, 2025.07.31 기준																							
종목코드	368590																						
상장일	2020.11.06																						
순자산규모	1조 1,083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0062%																						
기초지수	NASDAQ100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01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td>NVIDIA</td><td>10.0%</td></tr> <tr><td>Microsoft</td><td>9.2%</td></tr> <tr><td>Apple</td><td>7.2%</td></tr> <tr><td>Amazon.com</td><td>5.7%</td></tr> <tr><td>Broadcom</td><td>5.3%</td></tr> <tr><td>Meta Platforms</td><td>3.9%</td></tr> <tr><td>Netflix</td><td>2.8%</td></tr> <tr><td>Tesla</td><td>2.6%</td></tr> <tr><td>Alphabet A</td><td>2.6%</td></tr> <tr><td>Alphabet C</td><td>2.4%</td></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NVIDIA	10.0%	Microsoft	9.2%	Apple	7.2%	Amazon.com	5.7%	Broadcom	5.3%	Meta Platforms	3.9%	Netflix	2.8%	Tesla	2.6%	Alphabet A	2.6%	Alphabet C	2.4%
종목명	비중																						
NVIDIA	10.0%																						
Microsoft	9.2%																						
Apple	7.2%																						
Amazon.com	5.7%																						
Broadcom	5.3%																						
Meta Platforms	3.9%																						
Netflix	2.8%																						
Tesla	2.6%																						
Alphabet A	2.6%																						
Alphabet C	2.4%																						

편입 포트폴리오 섹터 구성



편입 포트폴리오 섹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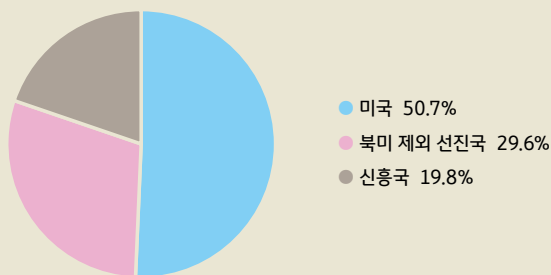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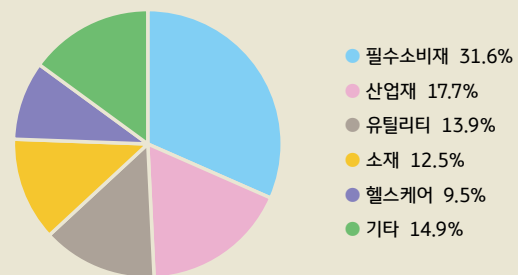
RISE 글로벌주식분산액티브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50%), 북미 제외 선진국(30%), 신흥국(20%) 주식 관련 대표지수 투자 •국가와 업종 분산으로 리스크 감소 및 안정성 확보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하나의 상품으로 효율적 접근 가능 																	
종목코드	459750																
상장일	2023.06.27																
순자산규모	162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20%																
기초지수	Bloomberg Global Equity Market Weighted Index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7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RISE 미국S&P500</td> <td>25.3%</td> </tr> <tr> <td>SPDR S&P 500 ETF Trust</td> <td>25.2%</td> </tr> <tr> <td>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td> <td>24.5%</td> </tr> <tr> <td>Vanguard FTSE Emerging Markets ETF</td> <td>13.9%</td> </tr> <tr> <td>iShares MSCI EAFE ETF</td> <td>4.9%</td> </tr> <tr> <td>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ETF</td> <td>2.9%</td> </tr> <tr> <td>Schwab Emerging Markets Equity ETF</td> <td>2.9%</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RISE 미국S&P500	25.3%	SPDR S&P 500 ETF Trust	25.2%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24.5%	Vanguard FTSE Emerging Markets ETF	13.9%	iShares MSCI EAFE ETF	4.9%	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ETF	2.9%	Schwab Emerging Markets Equity ETF	2.9%
종목명	비중																
RISE 미국S&P500	25.3%																
SPDR S&P 500 ETF Trust	25.2%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24.5%																
Vanguard FTSE Emerging Markets ETF	13.9%																
iShares MSCI EAFE ETF	4.9%																
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ETF	2.9%																
Schwab Emerging Markets Equity ETF	2.9%																

RISE 미국S&P배당킹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년 이상 배당성장을 기록한 미국 대표기업 투자 •필수소비재 관련 종목을 다수 편입, 경기방어주 중심 포트폴리오 •안정적 월배당 제공과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 동시 추구 																							
종목코드	460660																						
상장일	2023.06.27																						
순자산규모	155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01%																						
기초지수	S&P Dividend Monarchs Index																						
분배주기	매월																						
종목 수	39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Stanley Black & Decker</td> <td>4.7%</td> </tr> <tr> <td>Archer-Daniels-Midland</td> <td>4.6%</td> </tr> <tr> <td>Target</td> <td>4.5%</td> </tr> <tr> <td>Federal Realty Invt Trust</td> <td>4.2%</td> </tr> <tr> <td>Sonoco Products</td> <td>4.2%</td> </tr> <tr> <td>Black Hills</td> <td>4.1%</td> </tr> <tr> <td>Genuine Parts</td> <td>3.7%</td> </tr> <tr> <td>PepsiCo</td> <td>3.4%</td> </tr> <tr> <td>Hormel Foods</td> <td>3.3%</td> </tr> <tr> <td>AbbVie</td> <td>3.2%</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Stanley Black & Decker	4.7%	Archer-Daniels-Midland	4.6%	Target	4.5%	Federal Realty Invt Trust	4.2%	Sonoco Products	4.2%	Black Hills	4.1%	Genuine Parts	3.7%	PepsiCo	3.4%	Hormel Foods	3.3%	AbbVie	3.2%
종목명	비중																						
Stanley Black & Decker	4.7%																						
Archer-Daniels-Midland	4.6%																						
Target	4.5%																						
Federal Realty Invt Trust	4.2%																						
Sonoco Products	4.2%																						
Black Hills	4.1%																						
Genuine Parts	3.7%																						
PepsiCo	3.4%																						
Hormel Foods	3.3%																						
AbbVie	3.2%																						

편입 포트폴리오 국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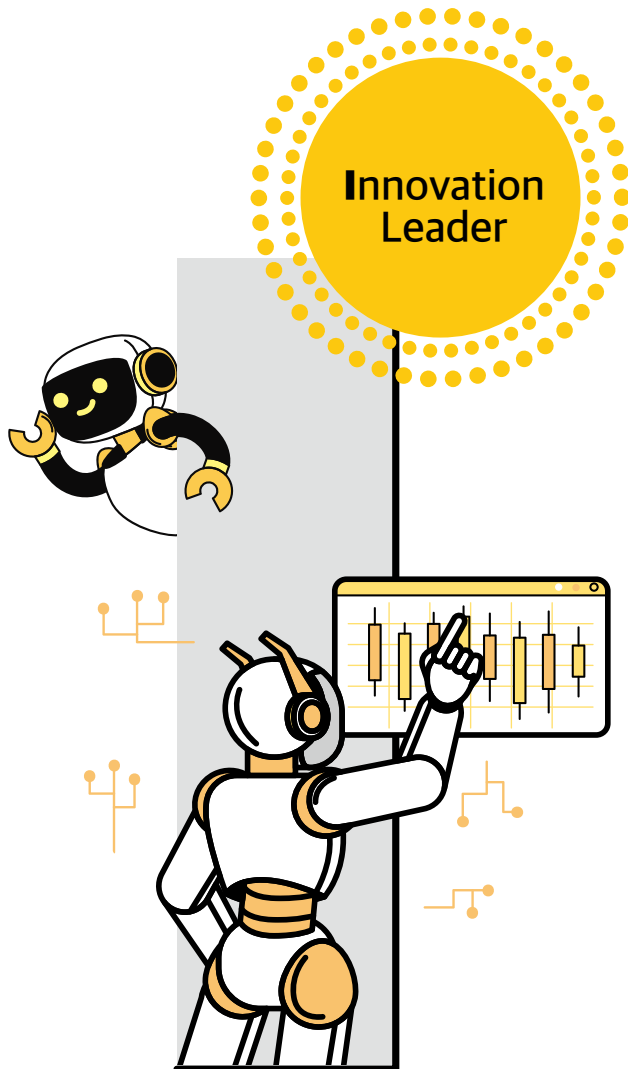
편입 포트폴리오 섹터 구성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se ETF

Innovation Leader (혁신 선도기업)



Innovation Leader

미래 성장을 주도할 혁신 기업에 투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혁신은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차세대 기술혁명을 이끄는 기업들에 투자하여 미래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선택입니다.

Innovation Leader (혁신 선도기업)의 핵심 가치

RISE ETF는 AI(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 차세대 기술혁명을 주도하는 신성장 기업과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 혁신 기술 접근 : 첨단 기술 분야의 선도 기업들에 분산 투자
- 성장 잠재력 :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높은 성장성에 투자
- 산업 변화 선도 : 디지털, 친환경, 첨단 의료 등 미래 산업에 포지셔닝
- 글로벌 경쟁력 : 기술 우위를 확보한 글로벌 기업에 투자

주요 투자 분야

- 인공지능(AI) :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프라&서비스까지 AI 밸류체인 기업
- 바이오테크 : 유전체학, 정밀의학, 첨단 치료제 개발 기업
- 로보틱스 : 의료/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
- 신소재 : 나노기술, 우주, 첨단 소재 개발 관련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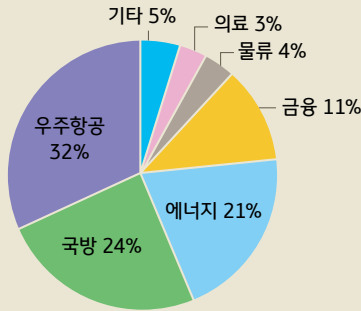
Innovation Leader ETF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에 미래 지향적인 균형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인간을 위한 AI의 진화와 확장 속 투자전략

기술의 진화와 시장의 변화

최근 몇 년간 AI(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금융, 의료, 제조, 콘텐츠, 자율주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낮은 상업화 가능성으로 더딘 움직임을 보였던 양자컴퓨팅 기술 역시 다양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AI를 잇는 새로운 투자테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30년 양자기술의 산업별 예상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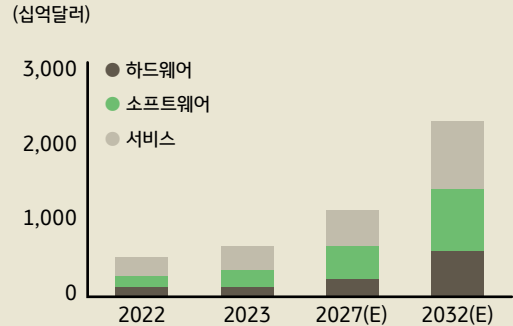
자료: <2024 양자정보기술백서>, KB자산운용

기술의 진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출현과 LLM(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은 고성능 AI 연산을 지원하는 반도체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으며, 정보 처리 방식의 혁신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AI 활용이 급증하고, AI 활용 및 서비스의 증가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인프라 확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프라와 서비스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며 다시 AI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AI 산업이 반도체 → 소프트웨어 → 서비스 및 인프라로 이어지며,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확장이 일부의 혁신을 넘어 인간의 삶과 사회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AI에 대한 장기 투자기회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기 간의 성과나 산업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산업의 흐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줄 전략적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AI 산업 분야별 매출 전망>



자료: Precedence Research, KB자산운용

기술 혁신 시대의 투자 전략

이와 같은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 ETF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인프라의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하여 AI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전략적 종목 선정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AI 투자의 근간이 될 반도체

AI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연산 능력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AI 특화 반도체입니다. GPU(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시작해, AI 학습을 최적화한 TPU(텐서 처리 장치), 특정 AI 작업에 맞춰 성능을 극대화한 ASIC(맞춤형 반도체)로 발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은 AI 모델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AI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고성능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며,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의 기업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AI 기술 확장의 근간이 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2)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의 무한 성장

AI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최적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Open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산업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운영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필수적인 기업 인프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으며,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수익성 역시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3) AI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반영한 투자 다변화

AI는 이제 단순한 연구 개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산업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은 데이터센터는 물론 전력인프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금융, 물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 AI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역시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등의 확산은 서비스 및 인프라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는 AI와 로봇공학이 결합된 혁신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략적 상품으로, AI의 물리적 적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RISE 미국양자컴퓨팅 ETF는 AI 이후의 컴퓨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대안을 제시합니다. 당장 시선을 끄는 압축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단기수익 추구보다 시장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장기투자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을 위한 AI 혁신과 투자 기회

국내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넘어 오감을 활용한 정보의 인지와 판단을 수행할 로봇의 등장은 '인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는 한편, 인간답게 살기 위한 더 나은 진화의 필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AI를 통해 소중한 기억을 복원하고, AI가 개발한 신약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아픈 환자는 치료는 물론 돌봄을 받으며, 망자와 대화를 나누는 '디지털 불멸의 시대'까지 인간을 위한 AI의 진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자원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술의 진화와 확장은 더욱 가파른 성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AI는 과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산업 지형을 바꿨던 것처럼 인간의 삶과 경제,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로써 기술 너머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RISE ETF는 AI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성장 기회를 반영하는 상품을 통해, 투자자들이 AI 혁신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포착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AI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AI와 양자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 들어갈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RISE ETF의 혁신적 투자 전략을 통해 미래를 선점하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료: 영화 <I, Robot 2004>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반도체-소프트웨어-서비스&인프라 밸류체인을 대표하는 15개 기업을 선별 투자 미국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혜주 집중 편입 																							
종목코드	485690																						
상장일	2024.07.23																						
순자산규모	498억원																						
위험등급	1등급																						
총보수(연)	0.01%																						
기초지수	KEDI 미국 AI 밸류체인 TOP3Plus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5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td>NVIDIA</td><td>16.1%</td></tr> <tr><td>Oracle</td><td>15.7%</td></tr> <tr><td>Microsoft</td><td>14.5%</td></tr> <tr><td>Advanced Micro Devices</td><td>5.6%</td></tr> <tr><td>Arista Networks</td><td>5.2%</td></tr> <tr><td>Vertiv Holdings</td><td>5.0%</td></tr> <tr><td>Broadcom</td><td>4.7%</td></tr> <tr><td>TSMC</td><td>4.5%</td></tr> <tr><td>Palantir Technologies</td><td>4.5%</td></tr> <tr><td>Meta Platforms</td><td>4.4%</td></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NVIDIA	16.1%	Oracle	15.7%	Microsoft	14.5%	Advanced Micro Devices	5.6%	Arista Networks	5.2%	Vertiv Holdings	5.0%	Broadcom	4.7%	TSMC	4.5%	Palantir Technologies	4.5%	Meta Platforms	4.4%
종목명	비중																						
NVIDIA	16.1%																						
Oracle	15.7%																						
Microsoft	14.5%																						
Advanced Micro Devices	5.6%																						
Arista Networks	5.2%																						
Vertiv Holdings	5.0%																						
Broadcom	4.7%																						
TSMC	4.5%																						
Palantir Technologies	4.5%																						
Meta Platforms	4.4%																						

RISE 미국양자컴퓨팅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에 이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컴퓨팅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 규모가 작지만 양자기술에 특화된 중소형 퓨어플레이어와 양자 컴퓨팅 신사업에 진출하는 안정적인 빅테크 기업까지 고른 투자 																							
종목코드	001820																						
상장일	2025.03.11																						
순자산규모	93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40%																						
기초지수	Solactive US Quantum Computing Technology Index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20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td>Quantum Computing</td><td>9.8%</td></tr> <tr><td>Rigetti Computing</td><td>9.2%</td></tr> <tr><td>IonQ</td><td>8.3%</td></tr> <tr><td>Alphabet A</td><td>8.0%</td></tr> <tr><td>D-Wave Quantum</td><td>7.8%</td></tr> <tr><td>NVIDIA</td><td>5.9%</td></tr> <tr><td>Marvell Technology</td><td>5.8%</td></tr> <tr><td>Cloudflare</td><td>5.8%</td></tr> <tr><td>Microsoft</td><td>5.1%</td></tr> <tr><td>Amazon.com</td><td>5.1%</td></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Quantum Computing	9.8%	Rigetti Computing	9.2%	IonQ	8.3%	Alphabet A	8.0%	D-Wave Quantum	7.8%	NVIDIA	5.9%	Marvell Technology	5.8%	Cloudflare	5.8%	Microsoft	5.1%	Amazon.com	5.1%
종목명	비중																						
Quantum Computing	9.8%																						
Rigetti Computing	9.2%																						
IonQ	8.3%																						
Alphabet A	8.0%																						
D-Wave Quantum	7.8%																						
NVIDIA	5.9%																						
Marvell Technology	5.8%																						
Cloudflare	5.8%																						
Microsoft	5.1%																						
Amazon.com	5.1%																						

AI밸류체인 구성 및 특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인프라
AI 구현을 위한 고사양 반도체 기술력 보유 기업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	빅데이터, 솔루션, 전력 등 서비스 및 인프라 기업

퓨어플레이어와 빅테크 기업에 고른 투자

퓨어플레이어(Pure Player): 양자컴퓨팅 특화기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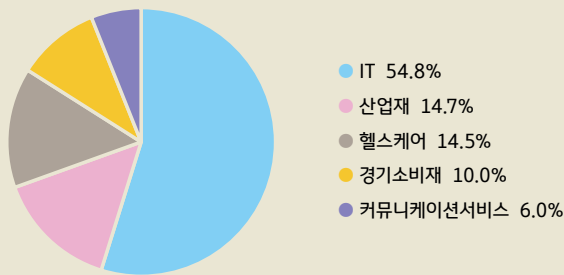
빅테크(Big Tech)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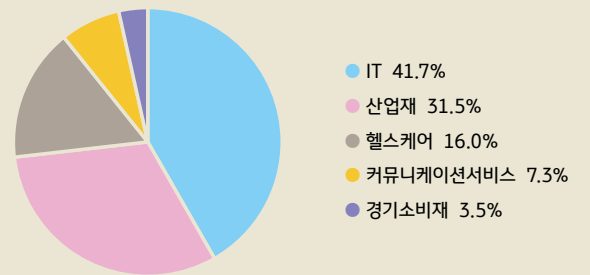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보편화로 인지-판단-구동의 3단계가 지시없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며 인간 노동의 완전한 대체가 가능해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ETF 휴머노이드의 핵심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애플리케이션에서 선도 기업을 선별해 밸류체인별 고른 투자 		
종목코드	0036R0	
상장일	2025.04.15	
순자산규모	141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40%	
기초지수	KEDI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7종목	
TOP 10 종목	종목명	비중
	Teradyne	10.6%
	NVIDIA	10.5%
	Tesla	10.0%
	Rockwell Automation	8.9%
	Intuitive Surgical	8.7%
	Zebra Technologies	8.2%
	Advanced Micro Devices	6.4%
	Medtronic	5.8%
	Honeywell International	5.8%
	Intel	5.8%

RISE AI&로봇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AI 및 로봇 유관 산업 내에서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을 선별해 AI와 로봇 산업에 한번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 상품 AI, 로봇 등 키워드 스코어와 실제 매출 연관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 추구 		
종목코드	469070	
상장일	2023.10.24	
순자산규모	1,526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40%	
기초지수	iSelect AI&로봇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35종목	
TOP 10 종목	종목명	비중
	NAVER	7.3%
	LG씨엔에스	6.7%
	두산로보틱스	6.5%
	로보티즈	6.2%
	레인보우로보틱스	5.4%
	루닛	4.8%
	현대오토에버	4.4%
	유일로보틱스	3.7%
	솔트룩스	3.0%
	에스피지	3.0%

편입 포트폴리오 섹터 구성



편입 포트폴리오 섹터 구성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SE AI반도체TOP10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성장하는 고성능 메모리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10 개 종목 선별 투자 •종목별 15 % Cap 적용해 실질적인 분산 투자와 분기 리밸런싱으로 빠른 시장 따라잡기 추구 																							
종목코드	0093A0																						
상장일	2025.08.26																						
순자산규모	200억원(예정)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20%																						
기초지수	FnGuide AI반도체TOP10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0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삼성전자</td> <td>17.2%</td> </tr> <tr> <td>SK하이닉스</td> <td>13.6%</td> </tr> <tr> <td>원익IPS</td> <td>11.9%</td> </tr> <tr> <td>ISC</td> <td>10.0%</td> </tr> <tr> <td>한미반도체</td> <td>9.3%</td> </tr> <tr> <td>테크윙</td> <td>9.1%</td> </tr> <tr> <td>주성엔지니어링</td> <td>8.8%</td> </tr> <tr> <td>와이씨</td> <td>7.9%</td> </tr> <tr> <td>파두</td> <td>7.8%</td> </tr> <tr> <td>피에스케이홀딩스</td> <td>4.4%</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삼성전자	17.2%	SK하이닉스	13.6%	원익IPS	11.9%	ISC	10.0%	한미반도체	9.3%	테크윙	9.1%	주성엔지니어링	8.8%	와이씨	7.9%	파두	7.8%	피에스케이홀딩스	4.4%
종목명	비중																						
삼성전자	17.2%																						
SK하이닉스	13.6%																						
원익IPS	11.9%																						
ISC	10.0%																						
한미반도체	9.3%																						
테크윙	9.1%																						
주성엔지니어링	8.8%																						
와이씨	7.9%																						
파두	7.8%																						
피에스케이홀딩스	4.4%																						

RISE 테슬라고정테크100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슬라(25%) + 미국테크100지수(75%)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자율주행과 전기차,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로봇까지 미국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에 25% 집중 투자 																							
종목코드	0047P0																						
상장일	2025.05.13																						
순자산규모	121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20%																						
기초지수	KEDI 테슬라고정테크100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00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Tesla</td> <td>23.8%</td> </tr> <tr> <td>NVIDIA</td> <td>9.3%</td> </tr> <tr> <td>Microsoft</td> <td>7.9%</td> </tr> <tr> <td>Apple</td> <td>7.3%</td> </tr> <tr> <td>Amazon.com</td> <td>5.4%</td> </tr> <tr> <td>Alphabet A</td> <td>5.3%</td> </tr> <tr> <td>Meta Platforms</td> <td>4.0%</td> </tr> <tr> <td>Broadcom</td> <td>3.3%</td> </tr> <tr> <td>Netflix</td> <td>1.3%</td> </tr> <tr> <td>BeOne Medicines</td> <td>1.1%</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Tesla	23.8%	NVIDIA	9.3%	Microsoft	7.9%	Apple	7.3%	Amazon.com	5.4%	Alphabet A	5.3%	Meta Platforms	4.0%	Broadcom	3.3%	Netflix	1.3%	BeOne Medicines	1.1%
종목명	비중																						
Tesla	23.8%																						
NVIDIA	9.3%																						
Microsoft	7.9%																						
Apple	7.3%																						
Amazon.com	5.4%																						
Alphabet A	5.3%																						
Meta Platforms	4.0%																						
Broadcom	3.3%																						
Netflix	1.3%																						
BeOne Medicines	1.1%																						

RISE AI반도체TOP10 투자포인트

대형주 & 중소형주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형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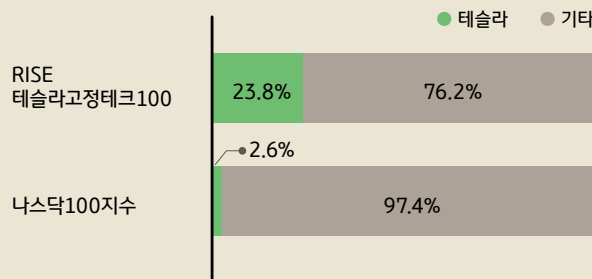
실질적인 분산 투자
종목 Cap 적용해 10개 종목 비중 분산

RISE AI반도체 TOP10

합리적 보수
타 AI 반도체 유형 대비 합리적인 보수

분기 리밸런싱
분기 리밸런싱으로 빠르게 시장 따라잡기

테슬라고정테크100지수 vs. 나스닥100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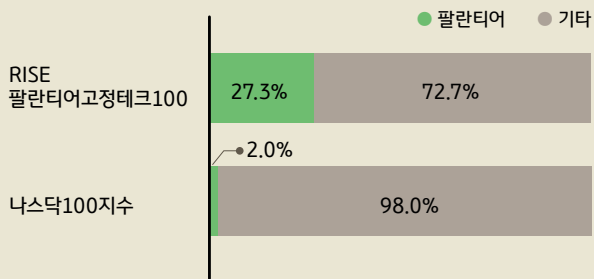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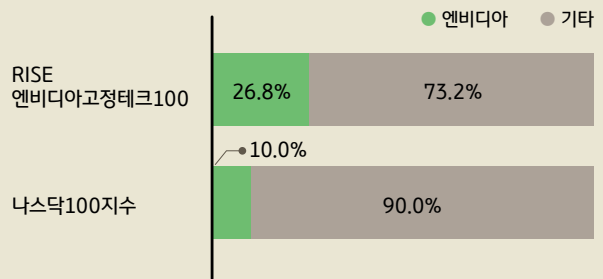
RISE 팔란티어고정테크100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란티어(25%) + 미국테크100지수(75%)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미국의 AI 패권 및 국방 산업 첨단화의 중추, 팔란티어에 25% 집중 투자 																							
종목코드	0047R0																						
상장일	2025.05.13																						
순자산규모	206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20%																						
기초지수	KEDI 팔란티어고정테크100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00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Palantir Technologies</td> <td>27.3%</td> </tr> <tr> <td>NVIDIA</td> <td>8.7%</td> </tr> <tr> <td>Microsoft</td> <td>7.4%</td> </tr> <tr> <td>Apple</td> <td>6.8%</td> </tr> <tr> <td>Amazon.com</td> <td>5.1%</td> </tr> <tr> <td>Alphabet A</td> <td>5.0%</td> </tr> <tr> <td>Meta Platforms</td> <td>3.8%</td> </tr> <tr> <td>Broadcom</td> <td>3.1%</td> </tr> <tr> <td>Tesla</td> <td>2.3%</td> </tr> <tr> <td>Netflix</td> <td>1.2%</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Palantir Technologies	27.3%	NVIDIA	8.7%	Microsoft	7.4%	Apple	6.8%	Amazon.com	5.1%	Alphabet A	5.0%	Meta Platforms	3.8%	Broadcom	3.1%	Tesla	2.3%	Netflix	1.2%
종목명	비중																						
Palantir Technologies	27.3%																						
NVIDIA	8.7%																						
Microsoft	7.4%																						
Apple	6.8%																						
Amazon.com	5.1%																						
Alphabet A	5.0%																						
Meta Platforms	3.8%																						
Broadcom	3.1%																						
Tesla	2.3%																						
Netflix	1.2%																						

RISE 엔비디아고정테크100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비디아(25%) + 미국테크100지수(75%)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AI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 GPU부터 로봇 공학 및 자동화 기술, 자율주행,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분야로 나아가는 엔비디아에 25% 집중 투자 																							
종목코드	0093B0																						
상장일	2025.08.26																						
순자산규모	100억원(예정)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20%																						
기초지수	KEDI 엔비디아고정테크100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00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NVIDIA</td> <td>26.8%</td> </tr> <tr> <td>Microsoft</td> <td>8.3%</td> </tr> <tr> <td>Apple</td> <td>7.7%</td> </tr> <tr> <td>Amazon.com</td> <td>5.7%</td> </tr> <tr> <td>Alphabet A</td> <td>5.6%</td> </tr> <tr> <td>Meta Platforms</td> <td>4.2%</td> </tr> <tr> <td>Broadcom</td> <td>3.5%</td> </tr> <tr> <td>Tesla</td> <td>2.5%</td> </tr> <tr> <td>Netflix</td> <td>1.4%</td> </tr> <tr> <td>BeOne Medicines</td> <td>1.1%</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NVIDIA	26.8%	Microsoft	8.3%	Apple	7.7%	Amazon.com	5.7%	Alphabet A	5.6%	Meta Platforms	4.2%	Broadcom	3.5%	Tesla	2.5%	Netflix	1.4%	BeOne Medicines	1.1%
종목명	비중																						
NVIDIA	26.8%																						
Microsoft	8.3%																						
Apple	7.7%																						
Amazon.com	5.7%																						
Alphabet A	5.6%																						
Meta Platforms	4.2%																						
Broadcom	3.5%																						
Tesla	2.5%																						
Netflix	1.4%																						
BeOne Medicines	1.1%																						

팔란티어고정테크100지수 vs. 나스닥100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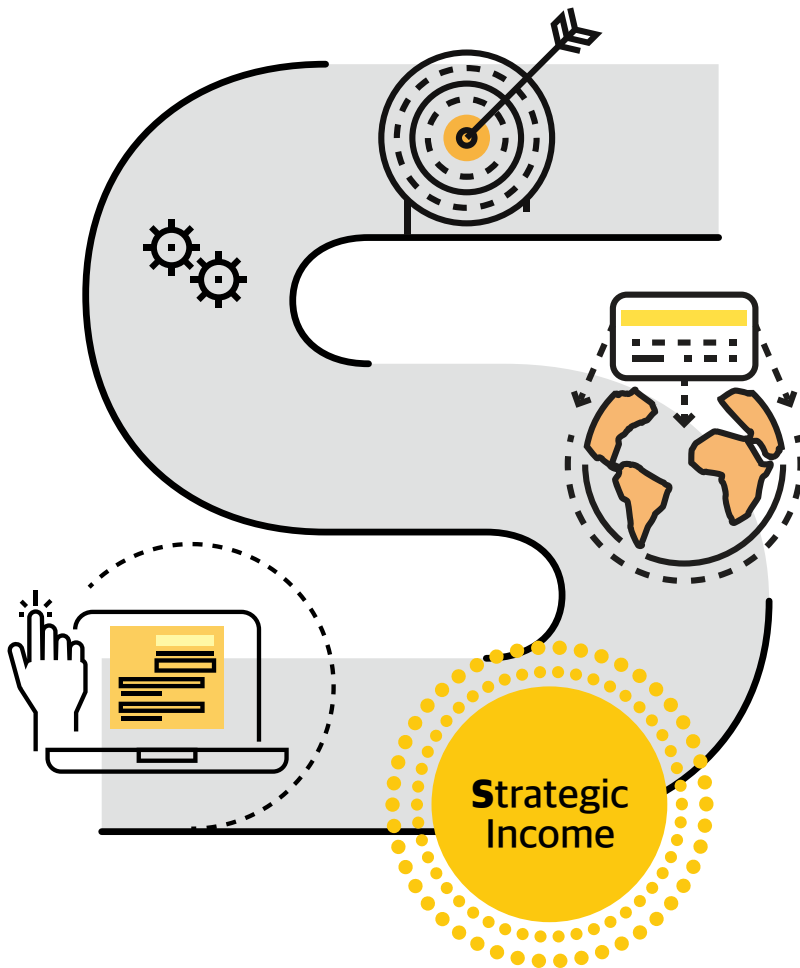
엔비디아고정테크100지수 vs. 나스닥100지수 비교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se ETF

Strategic Income (전략적 인컴)



Strategic Income

전략적 수익과 리스크 관리

경기 순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RISE ETF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자산배분, 커버드콜 전략 등을 활용하여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합니다.

Strategic Income (전략적 인컴)의 핵심 가치

RISE ETF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꾸준한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인컴 중심 전략과 차별화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 현금흐름** : 경기 사이클과 상관성이 낮은 투자 포트폴리오 보유
- **분산 효과** : 다양한 수익 전략을 조합하여 시장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감소
- **인플레이션 방어** : 금과 같은 실물 자산 포함으로 화폐가치 하락 위험 대비
- **하방 위험 관리** : 시장 하락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 추구

주요 투자 전략

- **커버드콜 전략** :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및 하방 위험 관리
- **글로벌 자산배분** :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전략적 배분
- **고배당 및 섹터로테이션** : 경기사이클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배당 수익 추구
- **현금/귀금속 투자** : 경기 불확실성 확대 국면의 대안, 안전자산 투자

Strategic Income ETF는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균형을 제공하며,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도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투자의 공짜 점심을 찾아서

자산배분을 통한 위험과 수익의 최적화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昨天的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산이 갑자기 급등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항상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합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투자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투자 전략과 방법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산배분’은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 하나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영역이었던 개념이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십 년간의 실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이 어떻게 복잡한 투자 환경에서 안정적인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과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자산배분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위험과 보상의 균형

금융 시장에서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과 보상 사이의 교환 관계가 존재하며,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이것이 투자의 기본 법칙입니다. 자산배분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산배분의 핵심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자산을 전략적으로 조합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위험을 분산하여 투자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서로 다른 자산들이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을 활용하고, 한 자산의 하락을 다른 자산의 상승으로 상쇄합니다. 둘째, 복리 투자효과를 최대로 활용합니다. 극단적인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적인 복리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합니다.

자산배분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두 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완전히 반대), 0(무관), +1(완전히 동일) 사이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주식과 채권은 종종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낮은 상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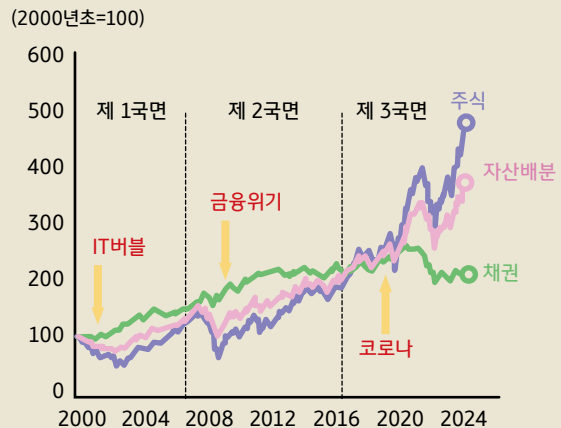
계를 보이는데, 이런 자산들을 조합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소극적 전략이 아니라,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집중하는 효율적 투자 방식입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배분의 실제 효과: 25년간의 투자 성과 분석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자산배분의 효과가 더욱 명확해 집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에 걸친 실제 투자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위해 세 가지 투자 방식을 설정했습니다: 1) 글로벌 주식, 2) 글로벌 채권, 그리고 3) 이 두 자산을 60:40 비율로 혼합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미국 상장 ETF를 기준으로 했으며, 환율 변동 요인은 배제했습니다.

<2000년 이후 주식/채권/자산배분 투자 성과 추이>



참고: 2000년 1월 ~ 2024년 12월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 초에 각 자산에 100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주식은 491원, 글로벌 채권은 226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385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최종 결과만 놓고 보면 주식 > 자산배분 > 채권 순으로 수익성이 좋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여정은 단순한 출발점과 도착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경험한 변동성과 심리적 압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여정을 세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3가지 자산군의 국면별 투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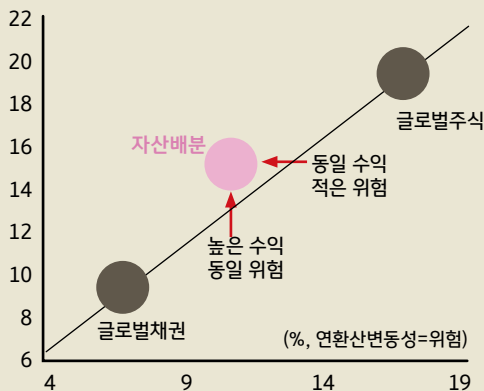
투자 자산군	투자성과			
	제 1국면 ('00~'07년)	제 2국면 ('08~'16년)	제 4국면 ('17~'24년)	전체 ('00~'24년)
글로벌 주식	+47.5%	+33.9%	+144.9%	+384.1%
글로벌 채권	+70.3%	+26.2%	+4.9%	+125.6%
자산배분 (주식 60% + 채권 40%)	+56.7%	+30.6%	+86.1%	+280.7%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각 국면마다 성과가 가장 우수한 자산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1국면에서는 채권이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반면, 주식은 가장 저조했습니다. 제2국면에서는 세 자산군의 성과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제3국면에서는 주식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모든 국면에서 극단적인 변동을 피하면서도 꾸준한 성과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동 전략이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0년 이후 주식/채권/자산배분 투자 성과 추이>

(%, 연환산수익률=수익)



참고: 2000년 1월 ~ 2024년 12월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투자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단순한 수익률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수한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환산 수익률과 연환산 변동성(위험)을 함께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채권, 글로벌 주식,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 구조를 보여줍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위치입니다. 글로벌 주식과 채권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보다 자산배분은 왼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산배분은 위험 대비 수익 측면에서 글로벌 주식 또는 채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위험 한 단위당 얻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을 때 위험 한 단위당 1.55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1.25)과 글로벌 채권(1.49) 보다 높은 값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자산배분 전략이 더 높은 수익을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환산 변동성과 수익률, 위험 대비 수익>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자산배분 (주식 60% + 채권 40%)
연환산 수익률(%)	19.6	9.0	15.4
연환산 변동성(%)	15.7	6.1	9.9
위험 대비 수익 (수익률/변동성)	1.25	1.49	1.55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산 간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는 0.377로, 이는 약 38%의 경우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나머지 62%는 한 자산이 상승할 때 다른 자산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함께 보유하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채권이 방어 역할을 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시에는 주식이 채권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분산 효과는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 원자재 같은 대체투자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배분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시장 변동 속에서도 극단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복리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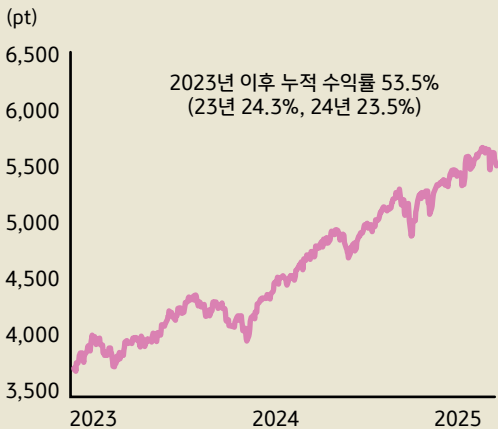
투자 타이밍의 함정과 자산배분의 해법

앞서 살펴본 위험-수익 분석에서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산배분이 필요한 더 실용적인 이유는 바로 투자 타이밍의 어려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 좋은 자산 선택: 수많은 자산 중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선정하는 것, 둘째, 적절한 매매 타이밍: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산 선택에 집중하지만, 실제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것은 종종 매매 타이밍입니다. 이 영향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자산 선택의 변수를 제거하고 단순히 S&P500 지수에만 투자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타이밍' 변수의 영향만을 따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은 2023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의 S&P500 지수 추이를 보여줍니다. 이 기간 동안 S&P500은 총 53.5%라는 놀라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에 24.3%, 2024년에 23.5%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2023년 이후 미국 S&P500지수 추이>



참고: 2023년 1월 ~ 2024년 12월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표면적으로는 “이 기간에 S&P500에 투자했다면 누구나 53.5%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투자 타이밍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에 한 번 매수하고 2024년에 매도했다는 가정 하에,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같은 자산에 투자하고 비슷한 기간 동안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매수와 매도 시점의 차이만으로 최대 61.9%p의 수익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던 이 기간에도 최악의 타이밍으로 투자한 경우(시나리오 4) 오히려 손실(-2.0%)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S&P500이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강세장에서도 타이밍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수 및 매도 타이밍별 S&P500 추가지수 투자 성과>

구분	매수 지수	매도 지수	수익률	비고
1) 2023년 저점 매수 + 2024년 고점 매도	3,808pt	6,090pt	59.9%	최고 성과
2) 2023년 저점 매수 + 2024년 저점 매도	3,808pt	4,689pt	23.1%	
3) 2023년 고점 매수 + 2024년 고점 매도	4,783pt	6,090pt	27.3%	
4) 2023년 고점 매수 + 2024년 저점 매도	4,783pt	4,689pt	-2.0%	최하 성과
성과 차이(%) (최고 수익-최저 수익)			61.9%p	차이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자 타이밍의 근본적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실제 투자에서는 ‘고점’이나 ‘저점’을 사전에 식별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사후적 분석’에 불과합니다. 특히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타이밍의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모든 시기에 극단적인 성과를 피하고 중간 수준의 성과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이는 ‘타이밍 의존성’을 크게 완화시킵니다.

자산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 내 여러 자산이 서로 다른 시점에 강세와 약세를 보이며 타이밍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일관된 장기 전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배분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타이밍의 함정에 대한 실용적인 해법인 것입니다.

종목 선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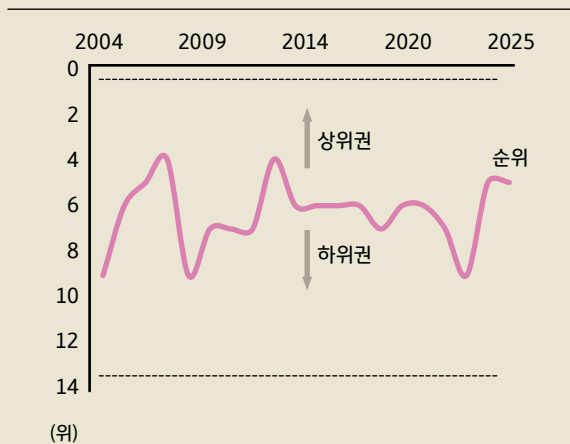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투자 타이밍의 어려움에 이어, 자산배분이 필요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종목 선택의 불확실성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완벽한 타이밍을 갖추었더라도 잘못된 자산이나 종목을 선택한다면 원하는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누구나 “향후 수십 년간 높은 성장을 보일 자산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마주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AI 관련주나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분야가 유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1. 현재의 주가가 미래 성장성을 이미 반영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지, 2. 해당 산업의 성장성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인지, 약화될 것인지, 3. 해당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인지

이러한 복잡성은 종목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할 경우 성공 확률을 낮춥니다. 주가(종속변수)를 결정하는 요인(독립변수)이 너무 많고,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분석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조차 장기적인 승자를 일관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산배분투자 연도별 순위>



참고: 2005년 ~ 2024년

출처: Bloomberg, KB자산운용

위 그림은 13개의 선택지 가운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글로벌 주식 60% + 글로벌 채권 40%)의 20년 간 연도별 수익률 순위를 보여줍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모든 연도에서 극단적인 성과를 피하고 중간 정도의 순위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한 적도 없지만, 최하위에 머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투자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바로 특정 시점에 뛰어난 성과를 내는 자산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자산이 무엇인지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산배분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종목 선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최고”의 자산을 선택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예측 실패의 위험을 분산합니다. 일부 자산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내더라도, 다른

자산이 그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끝으로 평균 이상의 일관된 성과를 추구합니다. 최고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최악의 성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시장 사이클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모든 시장 환경에서 적어도 일부 자산은 양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산배분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승자를 예측하려는 시도”에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투자 접근법을 전환시킵니다. 이는 특히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장기투자에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자산배분 투자

자산배분의 진정한 가치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배분의 위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투자 기간에 따라 자산배분의 효과는 달라집니다. 단기(1-3년)에는 특정 자산의 강한 상승이 포트폴리오를 압도할 수 있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중기(5-10년)가 되면 시장 사이클의 변화로 자산배분의 안정화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장기(10년 이상)에 이르면 복리의 힘이 작용하면서 작은 위험 감소와 수익률 개선이 누적되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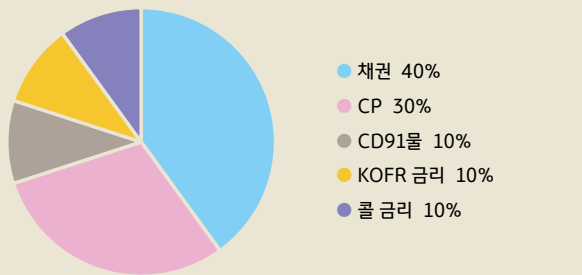
장기 투자에서 자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복리의 수학적 특성 때문입니다. 50% 하락 후 원금 회복을 위해서는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자산배분은 이런 극단적 하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 곡선은 투자자가 감정적 의사결정을 피하고 장기 전략을 유지하는 데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자산배분은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철학적 접근법입니다. 이는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투자 세계의 큰 함정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자산배분은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투자 여정에서 자산배분은 변화무쌍한 금융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자산배분은 당장의 최고 수익을 좇기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 증식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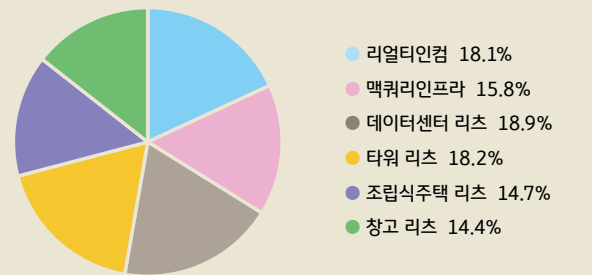
RISE 머니마켓액티브																							
개인연금, 퇴직연금(10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MMF 대비 낮은 보수와 완화된 규제로 초과 성과 추구 •단기채권(70-80%)과 현금성(20-30%) 자산 배분으로 안정성 확보 •금리 변동에 강한 구조로 연금계좌 현금성 자산 대안 적합 																							
종목코드	455890																						
상장일	2023.05.09																						
순자산규모	2조 3,852억원																						
위험등급	5등급																						
총보수(연)	0.05%																						
기초지수	KIS 시가평가 MMF 지수(총수익지수)																						
분배주기	매년																						
종목 수	293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전력공사 20250526-88-278</td> <td>10.0%</td> </tr> <tr> <td>한국토지주택공사 20250508-92-7</td> <td>10.0%</td> </tr> <tr> <td>연합자산관리 20250610-142-77</td> <td>10.0%</td> </tr> <tr> <td>CD91물</td> <td>10.0%</td> </tr> <tr> <td>KOFR 금리</td> <td>10.0%</td> </tr> <tr> <td>한국은행 콜 금리</td> <td>10.0%</td> </tr> <tr> <td>국고01125-2509(국고20-6)</td> <td>6.5%</td> </tr> <tr> <td>국고03625-2509(국고23-8)</td> <td>3.1%</td> </tr> <tr> <td>통안04020-2510-02</td> <td>3.0%</td> </tr> <tr> <td>통안03950-2509-03</td> <td>1.8%</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한국전력공사 20250526-88-278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20250508-92-7	10.0%	연합자산관리 20250610-142-77	10.0%	CD91물	10.0%	KOFR 금리	10.0%	한국은행 콜 금리	10.0%	국고01125-2509(국고20-6)	6.5%	국고03625-2509(국고23-8)	3.1%	통안04020-2510-02	3.0%	통안03950-2509-03	1.8%
종목명	비중																						
한국전력공사 20250526-88-278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20250508-92-7	10.0%																						
연합자산관리 20250610-142-77	10.0%																						
CD91물	10.0%																						
KOFR 금리	10.0%																						
한국은행 콜 금리	10.0%																						
국고01125-2509(국고20-6)	6.5%																						
국고03625-2509(국고23-8)	3.1%																						
통안04020-2510-02	3.0%																						
통안03950-2509-03	1.8%																						

RISE 글로벌리얼티인컴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대표 배당성장리츠 리얼티인컴과 국내 최대 상장인프라 펀드 맥쿼리인프라에 고정 투자 •통신타워, 데이터센터, 물류창고 등 향후 성장성 높은 리츠 중 배당성장 상위종목만 선별 투자 •연금계좌에서 직접 투자 어려운 리츠·인프라 자산 동시 투자 가능 																							
종목코드	475380																						
상장일	2024.02.20																						
순자산규모	360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01%																						
기초지수	Solactive Global Realty Income Index																						
분배주기	매월																						
종목 수	10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Realty Income</td> <td>18.1%</td> </tr> <tr> <td>맥쿼리인프라</td> <td>15.8%</td> </tr> <tr> <td>Digital Realty Trust</td> <td>10.9%</td> </tr> <tr> <td>American Tower</td> <td>9.6%</td> </tr> <tr> <td>Crown Castle</td> <td>8.6%</td> </tr> <tr> <td>Equinix</td> <td>8.0%</td> </tr> <tr> <td>Sun Communities</td> <td>7.8%</td> </tr> <tr> <td>EastGroup Properties</td> <td>7.3%</td> </tr> <tr> <td>Prologis</td> <td>7.2%</td> </tr> <tr> <td>Equity LifeStyle Properties</td> <td>6.9%</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Realty Income	18.1%	맥쿼리인프라	15.8%	Digital Realty Trust	10.9%	American Tower	9.6%	Crown Castle	8.6%	Equinix	8.0%	Sun Communities	7.8%	EastGroup Properties	7.3%	Prologis	7.2%	Equity LifeStyle Properties	6.9%
종목명	비중																						
Realty Income	18.1%																						
맥쿼리인프라	15.8%																						
Digital Realty Trust	10.9%																						
American Tower	9.6%																						
Crown Castle	8.6%																						
Equinix	8.0%																						
Sun Communities	7.8%																						
EastGroup Properties	7.3%																						
Prologis	7.2%																						
Equity LifeStyle Properties	6.9%																						

편입 포트폴리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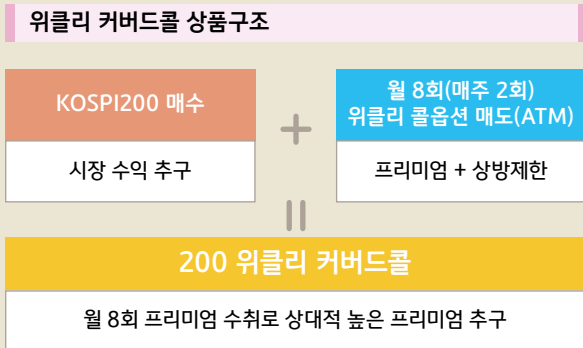


편입 포트폴리오 하위 섹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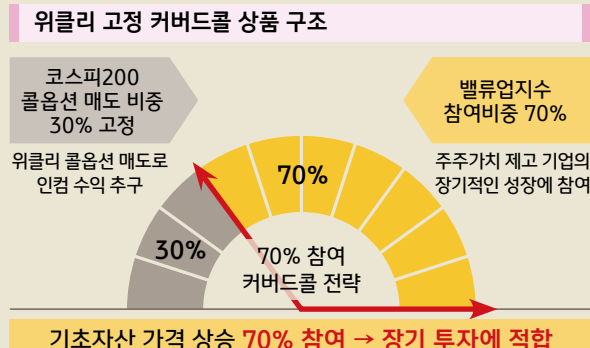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2회 콜옵션 매도로 기존 커버드콜보다 높은 인컴 수익 추구 • 옵션 프리미엄 + 코스피200 배당으로 안정적 분배 자원 마련 • 낮은 과세소득 구조로 절세 효과 제공 		
종목코드	475720	
상장일	2024.03.05	
순자산규모	4,539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30%	
기초지수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	
분배주기	매월	
종목 수	201종목	
TOP 10 종목	종목명	비중
	삼성전자	23.0%
	SK하이닉스	10.6%
	KB금융	2.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4%
	NAVER	2.1%
	현대차	2.0%
	신한지주	2.0%
	두산에너빌리티	1.9%
	셀트리온	1.9%
기아	1.7%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밸류업 지수는 가치주 스크리닝과 흡사. 밸류업 지수에 위클리 커버드콜(코스피200 콜옵션) 전략을 더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코스피200 지수 관련 콜옵션 매도 비중을 30%로 고정해 기초자산(코리아밸류업 지수) 장기 성장에 약 70% 수준 참여 		
종목코드	0094M0	
상장일	2025.09.02	
순자산규모	100억원(예정)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30%	
기초지수	코리아밸류업 위클리 커버드콜 30% 지수	
분배주기	매월	
종목 수	101종목	
TOP 10 종목	종목명	비중
	SK하이닉스	16.4%
	삼성전자	14.7%
	KB금융	5.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
	현대차	4.2%
	신한지주	4.1%
	기아	3.7%
	하나금융지주	3.2%
	현대모비스	2.7%
우리금융지주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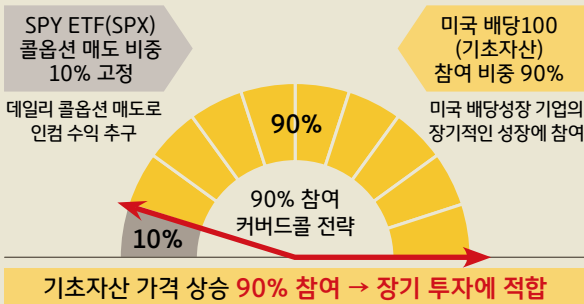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배당성장을 지속하며 장기 성과의 안정성을 입증한 미국 대표 배당 성장주 100종목에 투자 • 미국 대형주 지수 관련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고정해 기초자산 장기 성장에 90% 참여 • 데일리 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월분배 제공 		
종목코드	490600	
상장일	2024.09.24	
순자산규모	807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25%	
기초지수	KEDI 미국 배당100 90%참여 + 데일리옵션 프리미엄 지수(총수익지수)	
분배주기	매월	
종목 수	101종목	
TOP 10 종목	종목명	비중
	Johnson & Johnson	4.4%
	PepsiCo	4.2%
	Exxon Mobil	4.1%
	AbbVie	4.1%
	Home Depot	4.0%
	Coca-Cola	3.9%
	Procter & Gamble	3.8%
	Texas Instruments	3.5%
	UnitedHealth Group	3.3%
	Comcast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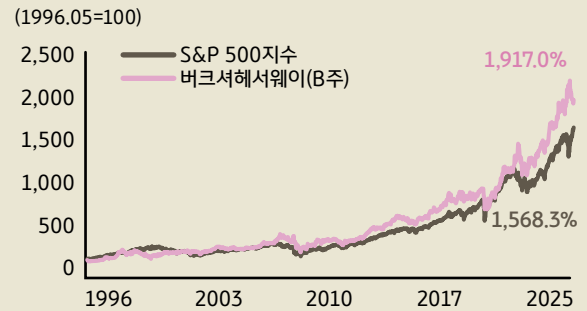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TOP10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와 버크셔 헤서웨이가 투자한 상위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 •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에 장기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추구하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추구하는 상품 		
종목코드	475350	
상장일	2024.02.27	
순자산규모	707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01%	
기초지수	Solactive Berkshire Portfolio Top10 Index(PR)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1종목	
TOP 10 종목	종목명	비중
	Berkshire Hathaway B	25.9%
	Apple	21.3%
	American Express	13.7%
	Coca-Cola	9.3%
	Bank of America	9.1%
	Chevron	5.9%
	Moody's	4.0%
	Occidental Petroleum	3.6%
	Kraft Heinz	3.2%
	Chubb	2.4%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상품구조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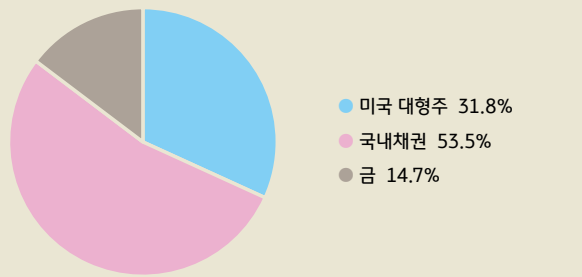
S&P 500지수 vs. 버크셔헤서웨이 B주 장기성과 비교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개인연금, 퇴직연금(10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대형주(30%), 국내채권(55%), 금(15%) 3가지 자산 분산 투자 올웨더(All-Weather) 전략으로 다양한 경기 국면 대응 안정적 중장기 수익 추구로 연금 투자에 최적화 																							
종목코드	461490																						
상장일	2023.06.27																						
순자산규모	2,622억원																						
위험등급	4등급																						
총보수(연)	0.01%																						
기초지수	Bloomberg Multi-Asset Weighted (KRW ETFs) Index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1종목																						
TOP 10 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ACE KRX금현물</td> <td>14.7%</td> </tr> <tr> <td>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td> <td>10.7%</td> </tr> <tr> <td>ACE 종합채권(AA-이상)KIS액티브</td> <td>10.7%</td> </tr> <tr> <td>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td> <td>10.7%</td> </tr> <tr> <td>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td> <td>10.7%</td> </tr> <tr> <td>SOL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td> <td>10.7%</td> </tr> <tr> <td>RISE 미국S&P500</td> <td>6.4%</td> </tr> <tr> <td>TIGER 미국S&P500</td> <td>6.4%</td> </tr> <tr> <td>ACE 미국S&P500</td> <td>6.4%</td> </tr> <tr> <td>SOL 미국S&P500</td> <td>6.4%</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ACE KRX금현물	14.7%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10.7%	ACE 종합채권(AA-이상)KIS액티브	10.7%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7%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7%	SOL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7%	RISE 미국S&P500	6.4%	TIGER 미국S&P500	6.4%	ACE 미국S&P500	6.4%	SOL 미국S&P500	6.4%
	종목명	비중																					
	ACE KRX금현물	14.7%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10.7%																					
	ACE 종합채권(AA-이상)KIS액티브	10.7%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7%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7%																					
	SOL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0.7%																					
	RISE 미국S&P500	6.4%																					
	TIGER 미국S&P500	6.4%																					
ACE 미국S&P500	6.4%																						
SOL 미국S&P500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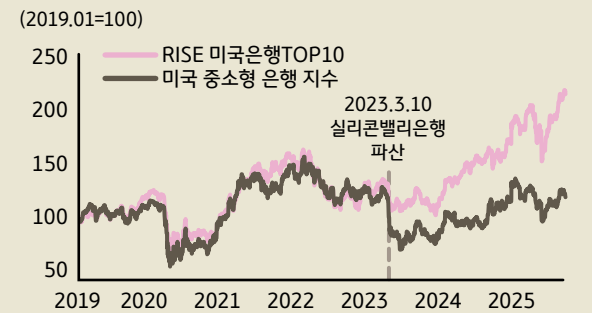
RISE 미국은행TOP10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대표 대형 상업&투자은행 TOP10 종목에 집중 투자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은행 수익성 개선 수혜 본격화 전망 IPO, M&A 등 자금조달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모멘텀 기대 																							
종목코드	0013P0																						
상장일	2025.02.18																						
순자산규모	87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20%																						
기초지수	KEDI 미국 은행 TOP10 지수																						
분배주기	매월																						
종목 수	10종목																						
TOP 10 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 <td>JPMorgan Chase</td> <td>19.9%</td> </tr> <tr> <td>Bank of America</td> <td>15.7%</td> </tr> <tr> <td>Wells Fargo</td> <td>12.0%</td> </tr> <tr> <td>Goldman Sachs Group</td> <td>10.7%</td> </tr> <tr> <td>Morgan Stanley</td> <td>10.6%</td> </tr> <tr> <td>Schwab(Charles)</td> <td>8.6%</td> </tr> <tr> <td>Citigroup</td> <td>8.6%</td> </tr> <tr> <td>Robinhood Markets</td> <td>5.2%</td> </tr> <tr> <td>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td> <td>4.5%</td> </tr> <tr> <td>U.S. Bancorp</td> <td>4.2%</td> </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JPMorgan Chase	19.9%	Bank of America	15.7%	Wells Fargo	12.0%	Goldman Sachs Group	10.7%	Morgan Stanley	10.6%	Schwab(Charles)	8.6%	Citigroup	8.6%	Robinhood Markets	5.2%	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4.5%	U.S. Bancorp	4.2%
	종목명	비중																					
	JPMorgan Chase	19.9%																					
	Bank of America	15.7%																					
	Wells Fargo	12.0%																					
	Goldman Sachs Group	10.7%																					
	Morgan Stanley	10.6%																					
	Schwab(Charles)	8.6%																					
	Citigroup	8.6%																					
	Robinhood Markets	5.2%																					
The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4.5%																						
U.S. Bancorp	4.2%																						

편입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구성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위기 국면 주가 추이



RIS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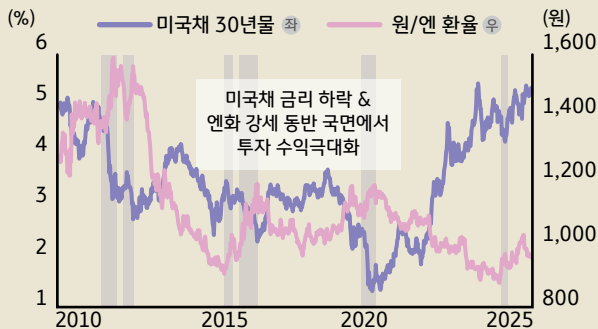
개인연금, 퇴직연금(100%), ISA 편입 가능

- 미국 30년 국채와 일본 엔화에 동시 투자하는 월배당 상품 (유효 듀레이션 16.6년)
- 금리 하락과 엔화 강세 흐름에 수혜 가능한 전략
- 하나의 상품으로 미국채+일본 엔화+절세 효과 동시 확보 가능

종목코드	472870
상장일	2023.12.27
순자산규모	4,288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15%
기초지수	KIS 미국채30년 엔화노출 지수 (USD/JPY 헤지)(총수익지수)
분배주기	매월
종목 수	40종목

		종목명	비중
TOP 10 종목		T 2.375 05/15/51	3.7%
		T 2 08/15/51	3.6%
		T 1.875 11/15/51	3.5%
		T 1.875 02/15/51	3.5%
		T 1.375 08/15/50	3.5%
		T 1.625 11/15/50	3.4%
		T 2.25 02/15/52	3.3%
		T 4.75 05/15/55	3.2%
		T 4.5 11/15/54	3.1%
		T 4.625 02/15/55	3.1%

미국채 금리 하락 & 엔화 강세 동반 국면에서 수익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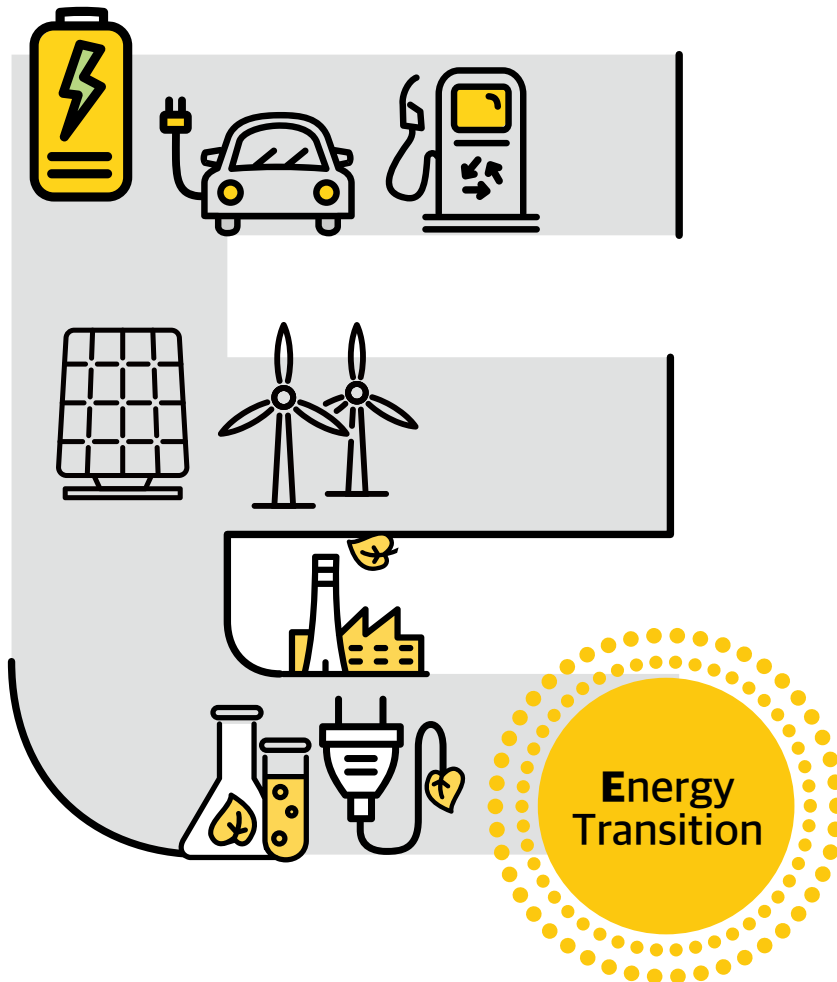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ise ETF

Energy Transition (에너지 전환)



Energy Transition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와 전환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RISE ETF는 이러한 장기적 산업 변화를 투자 기회로 삼아 핵심 자원 및 인프라 관련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Energy Transition (에너지 전환)의 핵심 가치

RISE ETF는 에너지 전환 테마를 구조적 성장기에 있는 메가트렌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에너지/인프라/솔루션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 구조적 성장 : 에너지 전환이라는 장기적 메가 트렌드에 투자
- 필수 인프라 :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와 자원에 접근
- 지속가능성 : 환경 및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
- 정책 수혜 : 글로벌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기회 포착

주요 투자 분야

- 클린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력 등 클린에너지 생산 기업
- 에너지 저장·인프라 : 배터리(2차전지) 기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기업
- 원자력·천연가스 : 에너지 전환기 수혜가 기대되는 원자력 및 천연가스 기업
- 수소 경제 :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관련 기업

Energy Transition 테마의 ETF는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라는 메가 트렌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전환기의 중심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찾다

에너지 패권의 변화와 글로벌 정책 대응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세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80%는 화석연료로 충족되었습니다. 화석연료 소비는 2030년까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해당 수치는 2011년 83%에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주요국의 최우선 과제일 수 있지만, 점차 탄소중립(Net Zero) 목표, 공급망 리스크, 전력 수요 급증 등 다양한 요인이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경쟁력과 안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자원부국과 교역로에서의 분쟁이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이어지면서, 각국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에 서명하는 한편,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설립 등을 통해 화석연료 생산과 인프라 건설에 적용되던 규제의 완화를 지시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강력한 환경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이뤄져 왔지만,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입니다.

한편, AI·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전체 에너지 수요 증가율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력의 60%를 화석연료가 공급하고 있지만(석탄 36%, 가스 22%), 지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은 13%로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이 핵심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지 않습니다. 기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이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환경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조합)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 에너지원과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구조 속에서 투자자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과 성장 기회를 선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4가지 핵심 에너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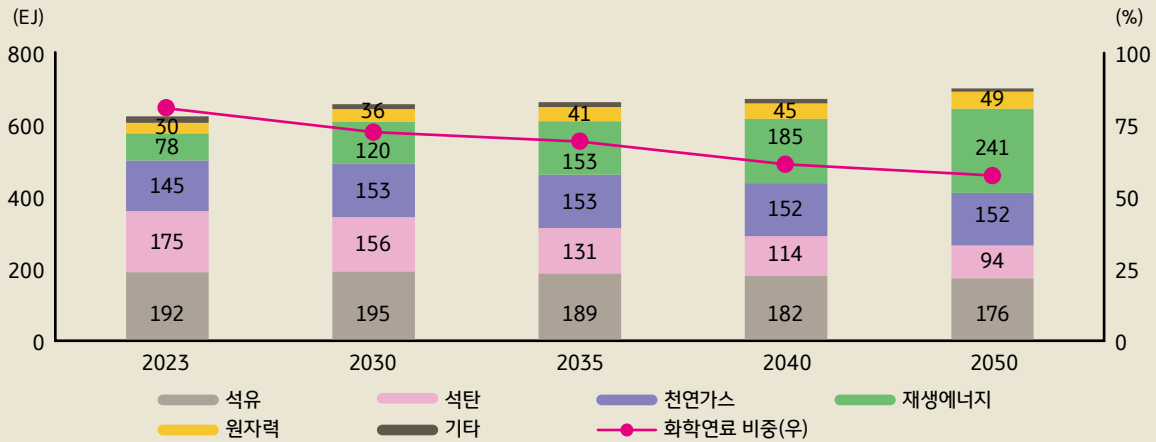
1) 원유(Oil): 여전히 필수적인 화석연료

원유는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전력 발전뿐만 아니라 항공·선박 연료, 합성섬유·합성고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며,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장기적인 원유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게 변하는 간헐성 문제가 존재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We will drill, baby, drill!" 선언과 함께 미국의 원유생산기업들이 중장기적인 유가 흐름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투자사이클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천연가스(Natural Gas): 에너지 전환기의 가교 역할

천연가스는 해저 분지에서 공기와 차단된 상태로 동식물성 플랑크톤의 퇴적물이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됩니다. 과거에는 기체 상태로의 수송과 저장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대비 탄소 배출량이 50% 적으며, 발전소 건설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에너지원별 비중의 변화 추이 및 전망(2023~2050년)>



출처: IEA, KB자산운용

이 2~3년으로 짧아 빠르게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AI·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천연가스가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LNG(액화천연가스) 수출이 확대되면서, 천연가스 밸류체인 전반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3) 원자력(Nuclear): SMR을 통한 재부상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친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36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5%로 확대하겠다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대형 원전의 높은 비용과 건설 기간의 한계를 극복한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커지는 지금,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 측면에서 원전 설비 및 부품에 강점을 보이는 국내 기업을 비롯하여 우라늄 보유 및 채굴기업, 원전 구축의 핵심 기술인 원자로 설계 기업 등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으로 투자시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수소(Hydrogen): 탄소 중립을 위한 종착지

수소에너지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와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산

화탄소 등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즉시 전기로 전환할 수 있어 발전 효율이 높으며, 부피 대비 에너지가 밀도가 높아 저장과 운반이 용이한 장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미래석유”로 불리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생산 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대규모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잉여 전력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저장한 후 소비지로 운송하는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 속에서 수소경제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수소경제가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메가트렌드 전환에서 찾는 투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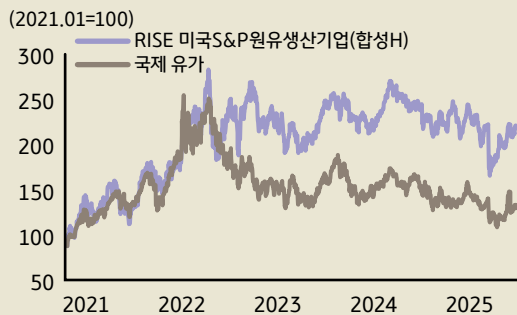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메가트렌드입니다. 우리는 전통 에너지원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RISE ETF는 미래 에너지 패권의 흐름을 포착하고,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원유 생산 기업과 원자력, 천연가스 밸류체인 및 수소경제까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온 RISE ETF와 함께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변화의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ISE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 H)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상장 원유/가스 탐사 및 생산 전문기업에 집중 투자 •미국 에너지 안보 중요성 확대에 따른 규제 완화 수혜 기대 •유가 움직임과 높은 상관관계로 원유 시장 상승 기회 포착 																							
종목코드	219390																						
상장일	2015.06.02																						
순자산규모	160억																						
위험등급	1등급																						
총보수(연)	0.25%																						
기초지수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Select Industry Index																						
분배주기	매년																						
종목 수	50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td>HF Sinclair</td><td>3.4%</td></tr> <tr><td>Chord Energy</td><td>3.3%</td></tr> <tr><td>Chevron</td><td>3.2%</td></tr> <tr><td>Marathon Petroleum</td><td>3.1%</td></tr> <tr><td>Valero Energy</td><td>3.1%</td></tr> <tr><td>Phillips 66</td><td>3.1%</td></tr> <tr><td>ConocoPhillips</td><td>3.1%</td></tr> <tr><td>Exxon Mobil</td><td>3.1%</td></tr> <tr><td>Matador Resources</td><td>3.1%</td></tr> <tr><td>Ovintiv</td><td>3.0%</td></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HF Sinclair	3.4%	Chord Energy	3.3%	Chevron	3.2%	Marathon Petroleum	3.1%	Valero Energy	3.1%	Phillips 66	3.1%	ConocoPhillips	3.1%	Exxon Mobil	3.1%	Matador Resources	3.1%	Ovintiv	3.0%
종목명	비중																						
HF Sinclair	3.4%																						
Chord Energy	3.3%																						
Chevron	3.2%																						
Marathon Petroleum	3.1%																						
Valero Energy	3.1%																						
Phillips 66	3.1%																						
ConocoPhillips	3.1%																						
Exxon Mobil	3.1%																						
Matador Resources	3.1%																						
Ovintiv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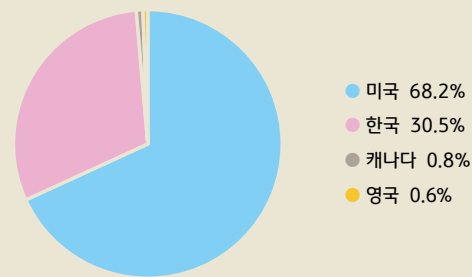
RISE 글로벌원자력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70%, 국내 30% 비중으로 우라늄 채굴부터 발전소 건설 등 국내외 원자력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글로벌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낮은 탄소 배출량,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상용화로 주목받는 원자력 산업에 투자 																							
종목코드	442320																						
상장일	2022.10.13																						
순자산규모	2,516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40%																						
기초지수	iSelect 글로벌원자력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30종목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목명</th> <th>비중</th> </tr> </thead> <tbody> <tr><td>Constellation Energy</td><td>26.4%</td></tr> <tr><td>Cameco</td><td>18.9%</td></tr> <tr><td>두산에너지빌리티</td><td>12.7%</td></tr> <tr><td>BWX Technologies</td><td>8.1%</td></tr> <tr><td>HD 현대일렉트릭</td><td>4.8%</td></tr> <tr><td>Oklo</td><td>3.5%</td></tr> <tr><td>효성중공업</td><td>2.6%</td></tr> <tr><td>NexGen Energy</td><td>2.2%</td></tr> <tr><td>현대건설</td><td>2.2%</td></tr> <tr><td>LS Electric</td><td>2.1%</td></tr> </tbody> </table>	종목명	비중	Constellation Energy	26.4%	Cameco	18.9%	두산에너지빌리티	12.7%	BWX Technologies	8.1%	HD 현대일렉트릭	4.8%	Oklo	3.5%	효성중공업	2.6%	NexGen Energy	2.2%	현대건설	2.2%	LS Electric	2.1%
종목명	비중																						
Constellation Energy	26.4%																						
Cameco	18.9%																						
두산에너지빌리티	12.7%																						
BWX Technologies	8.1%																						
HD 현대일렉트릭	4.8%																						
Oklo	3.5%																						
효성중공업	2.6%																						
NexGen Energy	2.2%																						
현대건설	2.2%																						
LS Electric	2.1%																						

국제유가 vs. S&P 원유생산기업 지수 성과 비교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입 포트폴리오 국가 구성



RISE 미국천연가스밸류체인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가스 밸류체인을 수익 창출 방식으로 분류하여 생산(30%), 인프라(50%), LNG수출(20%) 비중으로 투자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에너지 자립 정책으로 천연가스 산업 투자 지속 예상 타 에너지원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종목코드	003620	
상장일	2025.04.22	
순자산규모	102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40%	
기초지수	Solactive US Natural Gas Value Chain Index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15종목	
TOP 10 종목	종목명	비중
	Enbridge	15.1%
	Williams Cos	14.8%
	Exxon Mobil	14.7%
	TC Energy	14.5%
	Chevron	10.2%
	EOG Resources	5.4%
	ONEOK	4.2%
	Venture Global	4.1%
	Duke Energy	3.9%
	Occidental Petroleum	2.6%

RISE 수소경제테마		
개인연금, 퇴직연금(70%), ISA 편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발전 효율과 운반이 용이하여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수소에너지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투자 생산-저장 및 유통-발전 설비-수소자동차에 걸친 수소경제 밸류체인 전반의 국내 핵심기업에 투자 		
종목코드	367770	
상장일	2020.10.29	
순자산규모	1,261억원	
위험등급	2등급	
총보수(연)	0.45%	
기초지수	FnGuide 수소경제테마 지수	
분배주기	매분기	
종목 수	36종목	
TOP 10 종목	종목명	비중
	두산에너지빌리티	16.1%
	POSCO홀딩스	15.6%
	현대차	14.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0%
	현대모비스	13.9%
	효성중공업	4.6%
	LS Electric	3.8%
	포스코퓨처엠	3.7%
	두산	3.4%
	한화솔루션	2.6%

천연가스 밸류체인 구성 및 특징

생산	인프라	수출
지하 천연가스 추출 기업 	생산, 가공, 운송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 기업 	국제 시장으로 천연가스를 운송 기업

수소 밸류체인 구성 및 특징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물을 전기분해 하거나 원재료 합성을 통해 수소를 생성 	수소 압축 또는 액화를 통해 저장 및 운송 	수소 전지나 수소차 등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제품 생산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ETF 가이드북 FAQ

1. ETF에 대한 기초 개념이 궁금합니다.

Q ETF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을 추종하면서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편리함과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 ETF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금, 원유),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추종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처럼 특정 시장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Q ETF의 핵심 특징은 무엇인가요?

- 첫째,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하루에 한 번 정해진 기준가격으로만 거래되지만, ETF는 주식처럼 원하는 시점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 둘째, 다양한 기초자산을 추종할 수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 리츠 등 다양한 투자 대상을 포함하며, 특정 산업이나 테마를 반영한 ETF도 존재합니다.
- 셋째, 운용보수가 낮고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인덱스 펀드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장기간 보유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큼니다.
- 넷째,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와 달리 여러 종목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기업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투명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ETF는 보유 종목을 매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ETF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 ETF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총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보수율(Total Expense Ratio, TER)이란 투자자가 부담하는 연간 총 비용으로, 운용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산한 값을 펀드 순자산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 둘째,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ETF는 매매가 쉽고,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작아 추가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 셋째, 추적 오차(Tracking Error)가 작은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추적 오차는 ETF 수익률과 지수 수익률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KOSPI 200이 5% 오를 때 ETF가 4.8% 오르면 0.2%가 추적 오차입니다. 작을수록 지수를 잘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작은 ETF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 넷째, 종목 구성과 리밸런싱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ETF가 포함하는 종목과 비중이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너무 잦은 리밸런싱이 있는 ETF는 거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목적에 맞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ETF 상품명에 'H'와 'UH'는 무슨 의미인가요?

- 'H'는 Hedge(헤지)로, 환율 변동을 차단하여 환율 영향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반면, 'UH'는 UnHedge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Q H와 UH 중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가요?

-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원화 강세) 환헤지(H) ETF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면(달러 강세) 환노출(UH) ETF가 적합합니다. ETF 운용사는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거래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헤지 비용은 운용수수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또는 장기적인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전망한다면 환노출(UH)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기적인 원화 강세를 예상하거나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환헤지(H) ETF가 적합합니다.



Q ETF의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NAV)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ETF의 가격은 실시간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로 구분됩니다.
- 순자산가치(NAV)는 ETF가 보유한 자산의 총 가치를 ETF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매일 장 마감 후 공식적으로 계산됩니다.
- 시장 가격은 ETF가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매수·매도 수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ETF의 시장 가격은 NAV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ETF의 시장 가격이 NAV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첫째, 특정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이 많아지면 시장 가격이 순자산가치(NAV)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주문이 많아지면 시장 가격이 NAV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유동성이 부족한 ETF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을 경우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으며, NAV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셋째, 해외 주식을 기초로 하는 ETF는 해외 시장이 닫혀 있을 경우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담은 ETF는 한국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 미국 시장이 닫혀 있어 NAV와 실제 거래 가격이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현물 ETF와 합성 ETF는 무엇인가요?

- 현물 ETF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여, 그 자산의 가격 변동을 직접 추적하는 상품입니다. 기초 자산을 실제로 편입하기 때문에 가격 연동성이 높고, 파생상품과 관련된 신용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반면, 합성 ETF는 기초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스왑(Swap) 계약 등 파생상품을 통해 가격 변동을 간접적으로 추적합니다. 자산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낮고, 복잡하거나 해외에 있는 자산을 추적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파생상품 계약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Q2 현물 ETF와 합성 ETF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현물 ETF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자산 가격과의 연동성이 높고 파생상품에 따른 신용 리스크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반면, 합성 ETF는 파생상품을 활용해 기초 자산의 수익률을 추적합니다. 복잡하거나 해외에 있는 자산에도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직접 자산을 매입하지 않아 운용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스왑 계약을 맺는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Q ETF 상장폐지 시 어떻게 되나요?

-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유와 시점이 공지됩니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까지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에서 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2. ETF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Q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 RISE 200 ETF, RISE AI&로봇 ETF와 같은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매수한 RISE 200 ETF를 120만 원에 매도해 2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분배소득(배당소득세) 과세

-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받는 분배금(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금액은 “과세 대상 분배금”과 “과표 기준가격 증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과세 대상 분배금: 최초 발행가와 과표 기준가를 비교하여 결정
- * 과표 기준가격 증분: 배당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증가한 과표 기준가 금액

Q 국내 상장된 파생형 ETF(레버리지, 인버스 등)에 투자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 파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금액은 “매매차익”과 “과표 기준가격 증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파생형 ETF는 이와 같은 과세 구조로 인해 단기 매매에 유리하며, 장기 보유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단,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옵션 매도 프리미엄)은 비과세 대상으로, RISE 200위클리커버드 ETF와 같은 상품은 실제 과세대상 소득이 매우 작습니다.

2) 분배소득(배당소득세) 과세

- 파생형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상기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과세와 동일합니다.

Q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
- 과세 대상 금액은 “매매차익”과 “과표 기준가격 증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분배소득(배당소득세) 과세

-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됩니다(외국납부세액 인정비율만큼 원천징수 제외).
- 외국납부세액은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국내 과세 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환급 후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환급 없이 최종 지급 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별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ETF 투자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 ISA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금융소득(매매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형 ISA: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 서민형·청년형 ISA: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배당 ETF를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 없이 재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활용하기

-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회사책임형(DB) · 근로자책임형(DC)>

-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DB)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DC)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는 제도

<가입 대상>

-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 퇴직(일시)금 수령자(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가능)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 전 금융기관 합산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
- 연금저축 계좌 및 퇴직연금 DC/기업형 IRP 추가 납입분 합산
- ISA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 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 공제

<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한도: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 DC /기업형IRP 추가 납입분 합산)
- 세액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
- *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연금수령 대상>

- 만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고객
- *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 미적용

<중도 인출>

-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 단,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3. 이 밖에 자주 하는 질문

Q 기초지수가 2배 올랐는데 내 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왜 4배가 아닌가요?

- RISE 200선물레버리지는 KOSPI 200 선물지수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직관적이지만, 장기 투자 시 복리효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 예를 들어, KOSPI 200 지수와 RISE 200선물레버리지 모두 100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 때, 첫날 KOSPI 200이 10% 상승해 110원이 되면 레버리지 ETF는 20% 상승해 120원이 됩니다. 둘째 날 KOSPI200지수가 10% 하락하면 KOSPI200지수는 99원이 되고, 레버리지 ETF는 20% 하락하여 96원이 됩니다.
- 결과적으로 원지수는 1% 하락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4%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새로운 기준점에서 레버리지가 적용되어 변동성이 누적되는 '변동성 드래그(Volatility drag)'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 투자에 적합하며, 장기 보유 시 단순 2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해외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 중 어떻게 유리한가요?

-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계좌 개설, 환전 필요, 시차 문제 등 거래의 번거로움이 단점입니다.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15.4%(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국내 증권사 계좌로 원화 거래가 가능해 환전이나 해외 계좌 개설 없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특히,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를 이용하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이연 및 절감할 수 있어 장기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퇴직연금 관리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Q ETF 운용보수는 1년에 한번 징구되는건가요?

- ETF 운용보수는 1년에 한 번 일괄 청구되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ETF 순자산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운용보수는 연간 비용 비율(%)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일 단위로 계산되어 ETF 가격에 반영됩니다.
- 예를 들어, 운용보수가 연 0.5%인 ETF라면, 이를 365일로 나누어 매일 일정 비율씩 차감됩니다. 투자자는 별도로 운용보수를 납부할 필요 없이, 매매 시점의 ETF 가격에 이미 운용보수가 반영된 상태에서 거래하게 됩니다.

KB자산운용 RISE ETF 전략상품 라인업

R(Retirement Essential)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해외	379780	RISE 미국S&P500	2021-04-09	11,125	2등급	0.08	100%	70%
해외	453330	RISE 미국S&P500(H)	2023-03-21	996	2등급	0.16	100%	70%
해외	460660	RISE 미국S&P배당킹	2023-06-27	155	2등급	0.30	100%	70%
해외	368590	RISE 미국나스닥100	2020-11-06	11,083	2등급	0.12	100%	70%
해외	463300	RISE 중국본토CSI300	2023-08-08	320	2등급	0.29	100%	70%
해외	371150	RISE 차이나항생테크	2020-12-16	251	1등급	0.57	100%	70%
해외	459750	RISE 글로벌주식분산액티브	2023-06-27	162	2등급	0.39	100%	70%

I(Innovation Leader)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내	469070	RISE AI&로봇	2023-10-24	1,526	2등급	0.47	100%	70%
국내	0093A0	RISE AI반도체TOP10	2025-08-26	200	2등급	0.20	100%	70%
해외	276650	RISE 글로벌테크놀로지(합성 H)	2017-08-17	261	1등급	0.55	100%	70%
해외	485690	RISE 미국시벨류체인TOP3Plus	2024-07-23	498	1등급	0.12	100%	70%
해외	490590	RISE 미국시벨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2024-10-02	1,698	1등급	0.36	100%	70%
해외	495940	RISE 미국시테크액티브	2024-11-26	308	2등급	0.65	100%	70%
해외	469060	RISE 미국반도체NYSE	2023-10-24	157	2등급	0.19	100%	70%
해외	469050	RISE 미국반도체NYSE(H)	2023-10-24	348	2등급	0.14	100%	70%
해외	0018Z0	RISE 미국양자컴퓨팅	2025-03-11	93	2등급	0.49	100%	70%
해외	0036R0	RISE 미국휴머노이드로봇	2025-04-15	141	2등급	0.45	100%	70%
국내	0000Z0	RISE 바이오TOP10액티브	2024-12-24	161	2등급	0.56	100%	70%
국내	388420	RISE 비메모리반도체액티브	2021-06-10	2,665	1등급	0.57	100%	70%
해외	0093B0	RISE 엔비디아고정테크100	2025-08-26	100	2등급	0.20	100%	70%
해외	0047P0	RISE 테슬라고정테크100	2025-05-13	121	2등급	0.25	100%	70%
해외	0047R0	RISE 팔란티어고정테크100	2025-05-13	206	2등급	0.27	100%	70%

S(Strategic Income)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내	290080	RISE 200고배당커버드콜ATM	2018-02-27	181	3등급	0.45	100%	X
국내	475720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2024-03-05	4,539	2등급	0.33	100%	70%
국내	477080	RISE CD금리액티브(합성)	2024-03-26	10,518	4등급	0.04	100%	100%
국내	479520	RISE KOFR금리액티브(합성)	2024-04-30	3,427	4등급	0.04	100%	100%
해외	475380	RISE 글로벌리얼티링크	2024-02-20	360	2등급	0.11	100%	70%
해외	461490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2023-06-27	2,622	4등급	0.09	100%	100%
국내	0061Z0	RISE 단기특수은행채액티브	2025-06-24	10,449	5등급	0.01	100%	100%
국내	455890	RISE 머니마켓액티브	2023-05-09	23,852	5등급	0.06	100%	100%
해외	472870	RIS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합성 H)	2023-12-27	4,288	2등급	0.18	100%	100%
해외	472830	RISE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합성)	2023-12-14	569	3등급	0.44	100%	100%
해외	0005C0	RISE 미국S&P500엔화노출(합성 H)	2025-01-14	106	2등급	0.35	100%	70%
해외	455960	RISE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	2023-05-16	543	3등급	0.08	100%	70%
해외	490600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2024-09-24	807	2등급	0.52	100%	70%
해외	0013P0	RISE 미국은행TOP10	2025-02-18	87	2등급	0.29	100%	70%
해외	491620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2024-10-02	1,213	2등급	0.43	100%	70%
해외	475350	RISE 버크셔소프트프리오프TOP10	2024-02-27	707	2등급	0.11	100%	70%
국내	0094M0	RISE 코리아밸류업위클리고정커버드콜	2025-09-02	100	2등급	0.30	100%	100%
해외	0013R0	RISE 테슬라미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	2025-02-18	159	2등급	0.32	100%	100%
국내/외	449580	RISE 테슬라에플아마존채권혼합	2022-12-20	91	4등급	0.46	100%	100%

E(Energy Transition)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내	465330	RISE 2차전지TOP10	2023-09-12	945	2등급	0.15	100%	70%
인버스	465350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2023-09-12	968	2등급	0.57	X	X
국내	422420	RISE 2차전지액티브	2022-04-08	1,568	2등급	0.42	100%	70%
국내	290130	RISE ESG사회책임투자	2018-02-27	854	2등급	0.33	100%	70%
해외	375270	RISE 글로벌데이터센터리츠(합성)	2021-01-14	80	2등급	0.57	100%	70%
해외	417450	RISE 글로벌수소경제	2022-02-15	141	2등급	0.68	100%	70%
해외	442320	RISE 글로벌원자력	2022-10-13	2,516	2등급	0.50	100%	70%
해외	399580	RISE 글로벌클린에너지	2021-10-21	71	2등급	1.02	100%	70%
해외	219390	RISE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 H)	2015-06-02	160	1등급	0.40	100%	70%
해외	0036Z0	RISE 미국전연가스밸류체인	2025-04-22	102	2등급	0.58	100%	70%
국내	367770	RISE 수소경제테마	2020-10-29	1,261	2등급	0.51	100%	70%

KB자산운용 RISE ETF 상품 라인업

주식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내	148020	RISE 200	2011-10-20	15,531	2등급	0.04	100%	70%
국내	361580	RISE 200TR	2020-08-21	2,399	2등급	0.05	100%	70%
국내	284980	RISE 200금융	2017-12-08	223	2등급	0.25	100%	70%
레버리지	252400	RISE 200선물레버리지	2016-09-12	260	1등급	0.63	X	X
인버스	252410	RISE 200선물인버스	2016-09-12	27	1등급	0.68	X	X
인버스	252420	RISE 200선물인버스2X	2016-09-22	119	1등급	0.64	X	X
국내	367760	RISE 5G테크	2020-10-29	322	1등급	0.51	100%	70%
국내	105780	RISE 5대그룹주	2008-10-22	136	2등급	0.46	100%	70%
국내	326240	RISE IT플러스	2019-06-20	1,406	2등급	0.46	100%	70%
국내	270800	RISE KQ고배당	2017-07-07	79	2등급	0.43	100%	70%
국내	292050	RISE KRX300	2018-03-26	74	2등급	0.11	100%	70%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B자산운용 ※ TER는 총보수와 기타비용의 합계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내	234310	RISE V&S셀렉트밸류	2016-02-02	82	2등급	0.66	100%	70%
국내	300640	RISE 게임테마	2018-07-24	290	1등급	0.35	100%	70%
국내	266160	RISE 고배당	2017-04-14	903	2등급	0.26	100%	70%
해외	437370	RISE 글로벌농업경제	2022-07-29	56	2등급	0.83	100%	70%
해외	476310	RISE 글로벌비만산업TOP2+	2024-02-27	45	2등급	0.59	100%	70%
국내	326230	RISE 내수주플러스	2019-06-20	323	2등급	0.47	100%	70%
국내	315960	RISE 대형고배당10TR	2019-01-22	786	2등급	0.13	100%	70%
국내	401170	RISE 메타버스	2021-10-13	1,051	1등급	0.52	100%	70%
해외	354240	RISE 미국고정배당우선증권	2020-05-19	166	3등급	0.72	100%	70%
인버스	491630	RISE 미국반도체인버스(합성 H)	2024-10-22	72	1등급	0.72	X	X
국내	446700	RISE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2-11-01	136	2등급	0.48	100%	70%
국내	140570	RISE 수출주	2011-04-15	60	2등급	0.58	100%	70%
국내	140580	RISE 우량업종대표주	2011-04-15	79	2등급	0.53	100%	70%
해외	379790	RISE 유로스탁스50(H)	2021-04-09	128	2등급	0.64	100%	70%
해외	498610	RISE 인도디지털성장	2025-04-01	80	2등급	0.52	100%	70%
해외	488480	RISE 일본섹터TOP4Plus	2024-08-20	73	2등급	0.70	100%	70%
해외	310080	RISE 중국MSCI China(H)	2018-11-28	125	1등급	0.81	100%	70%
해외	174360	RISE 중국본토대형주CSI100	2013-06-04	682	2등급	0.85	100%	70%
국내	281990	RISE 중소형고배당	2017-11-02	109	2등급	0.43	100%	70%
해외	250730	RISE 차이나HSCIE(H)	2016-08-10	284	2등급	0.23	100%	70%
인버스	291680	RISE 차이나IT선물인버스(H)	2018-03-23	39	1등급	1.36	X	X
해외	0094L0	RISE 차이나테크TOP10위클리타겟버드콜	2025-09-02	100	1등급	0.30	100%	70%
국내	388280	RISE 컨택트대표	2021-06-10	376	2등급	0.52	100%	70%
국내	498860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2024-12-10	632	2등급	0.15	100%	70%
국내	495050	RISE 코리아밸류업	2024-11-04	1,702	2등급	0.03	100%	70%
국내	270810	RISE 코스닥150	2017-06-16	971	1등급	0.22	100%	70%
레버리지	278240	RISE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2017-08-31	882	1등급	0.64	X	X
인버스	275750	RISE 코스닥150선물인버스	2017-08-01	21	1등급	0.72	X	X
국내	302450	RISE 코스피	2018-07-24	1,615	2등급	0.16	100%	70%
국내	427120	RISE 플랫폼테마	2022-05-17	317	2등급	0.61	100%	70%
국내	253280	RISE 헬스케어	2016-09-23	82	1등급	0.16	100%	70%

채권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내	448600	RISE 25-11 회사채(AA-이상)액티브	2022-11-22	1,313	5등급	0.09	100%	100%
국내	385560	RISE KIS국고채30년Enhanced	2021-05-26	4,930	2등급	0.07	100%	100%
국내	481430	RISE 국고채10년액티브	2024-05-21	1,731	5등급	0.03	100%	100%
국내	114100	RISE 국고채3년	2009-07-29	515	5등급	0.14	100%	100%
인버스	282000	RISE 국고채3년선물인버스	2017-11-09	224	4등급	0.10	X	X
레버리지	451670	RISE 국채30년레버리지(합성)	2025-02-14	126	1등급	0.13	X	X
국내	295000	RISE 국채선물10년	2018-05-11	209	4등급	0.12	100%	X
인버스	295020	RISE 국채선물10년인버스	2018-05-11	1,321	3등급	0.10	X	X
국내	432600	RISE 국채선물3년	2022-06-14	57	5등급	0.12	100%	X
국내	397420	RISE 국채선물5년추종	2021-08-31	53	5등급	0.14	100%	X
국내	336160	RISE 금융채액티브	2019-10-29	446	5등급	0.09	100%	100%
국내	272560	RISE 단기국공채액티브	2017-06-29	1,637	6등급	0.09	100%	100%
국내	385550	RISE 단기채권알파액티브	2021-05-26	3,141	6등급	0.07	100%	100%
국내	196230	RISE 단기통안채	2014-05-19	3,234	6등급	0.15	100%	100%
해외	481340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2024-05-28	309	2등급	0.19	100%	100%
해외	437350	RISE 미국단기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2022-07-29	247	4등급	0.21	100%	100%
해외	267440	RISE 미국장기국채선물(H)	2017-04-20	76	3등급	0.62	100%	X
레버리지	267490	RISE 미국장기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2017-04-20	66	1등급	0.78	X	X
인버스	267450	RISE 미국장기국채선물인버스(H)	2017-04-20	56	2등급	0.91	X	X
국내	385540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2021-05-26	16,364	5등급	0.03	100%	100%
국내	136340	RISE 중기우량회사채	2011-04-15	1,791	5등급	0.10	100%	100%
국내	272570	RISE 중장기국공채액티브	2017-06-29	251	5등급	0.09	100%	100%

혼합자산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내/외	442550	RISE TDF2030액티브	2022-09-22	73	4등급	0.24	100%	100%
국내/외	442560	RISE TDF2040액티브	2022-09-22	97	3등급	0.21	100%	100%
국내/외	442570	RISE TDF2050액티브	2022-09-22	304	2등급	0.11	100%	100%
국내	241390	RISE V&S셀렉트밸류채권혼합	2016-04-12	153	4등급	0.42	100%	100%
국내	448630	RISE 삼성그룹Top3채권혼합	2022-11-29	165	4등급	0.43	100%	100%
국내	183710	RISE 주식혼합	2013-10-17	94	3등급	0.41	100%	70%
국내	183700	RISE 채권혼합	2013-10-17	159	4등급	0.29	100%	100%
국내	253290	RISE 헬스케어채권혼합	2016-09-23	149	4등급	0.43	100%	100%

원자재/통화

구분	종목코드	ETF 명칭	상장일	순자산(억원)	위험등급	TER(연, %)	개인연금	퇴직연금
인버스	469530	RISE 미국달러선물인버스	2023-11-09	60	3등급	0.10	X	X
원자재	334690	RISE 팔라듐선물(H)	2019-09-24	43	1등급	1.06	100%	X
인버스	334700	RISE 팔라듐선물인버스(H)	2019-09-24	22	1등급	1.34	X	X

※ 자료: 2025년 7월 31일 기준, KIS자산운용 ※ TER는 총보수와 기타비용의 합계이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KB자산운용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나, 그 내용이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KB자산운용은 본 자료를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합성총보수 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 (0~100%)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 ETF 거래수수료는 거래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증권사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재무실적 및 영업실적 등의 수치는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5_416(다)'
(2025.03.25~ 2026.03.24)

RiseETF



Homepage
www.riseetf.co.kr



Youtube
www.youtube.com/@RISE ETF